

17世紀 佛殿의 再建役

李 康 根*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17세기 불전의 건축적 특징 |
| II. 17세기 불전의 조성배경 | V. 17세기 불전 재건역의 건축사적 의의 |
| III. 17세기 불전의 재건역 | |

I. 머리말

1. 연구 목적

조선후기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世紀史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이 시대구분에 있다고 할 정도로 시대를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가는 역사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시대사는 이제까지 전기·후기의 2분법, 혹은 전기·중기·말기의 3분법, 나아가서 초기·중기·후기·말기의 4분법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때로는 王代別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세기별로 구분하면 역사를 종합적·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17世紀 建築史'라는 새로운 연구 단위를 설정해 보았다.

17세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장기적이고도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겪고 나서 朝鮮·明·日本 3국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게 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성 시기에 해당된다. 일본의 침략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천년 이상 전해져 내려온 문화유산이 잿더미로 변해 버린 폐허 위에서 조선왕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原狀復舊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16세기부터 시작된 지배질서의 변화 혹은 수정이 전쟁을 계기로 한층 본격화한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가운데서 '제 IV장. 17세기 불전의 재건' 부분만을 발췌·요약하고 제 VI장. 17세기 불전 莊嚴의 특성 가운데 일부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각 불전의 구체적인 재건 실상 및 장엄 내용을 전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서 대체적인 흐름만을 기술하는데 그쳤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시기가 바로 17세기이다. 새로운 조짐이 低流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에 예술 사에서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불교사원은 朝鮮前期를 거치면서 불교의 쇠퇴과정과 더불어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의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결과 폐허화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의병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僧兵들의 활약에 힘입어 불교사원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¹⁾

한편, 현재 고려말 조선전기의 불전은 13채뿐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불전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재건된 것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왜란 직후인 17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다. 17세기의 초반부에는 문자 그대로 '復舊'가 행해지거나 임시로 사용할 건물을 짓는데 그쳤다. 이때는 조선전기 이래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건축술을 그대로 활용하여 부분적이거나 戰前 상태의 復舊를 시도하였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 가운데는 16세기말에 새롭게 등장한 경향, 이른바 構造要素의 裝飾化 경향도 포함된다. 이 경향이 17세기에 본격화되고 이후 18·19세기를 풍미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사원 건축은 사원에 소속된 기술자인 僧匠들의 설계와 고위 승직자들의 후원 및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승장의 직능상 역할 및 승장 집단의 조직과 系譜를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만일 불교사원 건축의 창작 주체인 화주와 승장의 역할 및 계보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건물들간의 상호 관련성 즉 지역성이나 양식상의 유평을 추정하는 것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17세기의 재건축을 생각할 때 당시의 경제적·정치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經濟적으로 부유하고 政治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만 文化가 발전하는 것인가? 오히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오히려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무장된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의 문화가 극복되고 새로운 문화가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 17세기는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을 내려 줄 것인가. 17세기의 불교사원 건축은 이 시기에 형성된 새로운 조류의 문화상을 극명하게 보여 줄 예술사적 대상이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불교사원 건축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첫째, 佛敎史上 가장 커다란 변화인 宗派의 통폐합이 조선전기부터 강행되기 시작한 결

1)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까지 계속된 장기간의 전란이 끝나자 승려들은 정부 주도하에 僧軍으로 편성되어 國境防備 및 築城 사업에 동원되었으며, 산성 안에는 승군이 거처할 僧營寺刹이 다수 건립되었다. 『輿地勝覽』에 따르면 18세기 전반까지 약 1,530개소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산성과 관련하여 새로 건립된 사찰이 97개소이어서 총사찰수의 6%에 달했음은 특히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승영사찰의 건립은 17세기 이후에는 항례화되었다. 게다가 승영사찰의 도총섭이나 총섭은 僧將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僧營사찰에 대한 조정의 임무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영사찰의 배치형식과 불전의 장엄법은 앞 시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예가 드물어 단언할 수는 없다.

과 조선후기에는 조계종을 단일 종파로 하는 이른바 ‘通佛敎’가 성립되었으므로, 불교사원 건축의 시대구분도 여기에 맞추어 조선후기 불교건축을 通佛敎 건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²⁾

둘째, 조선후기 즉 17·18·19세기의 불교사원 건축은 동일한 건축적 특징을 갖는 양식상의 한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³⁾

셋째, 불교의 쇠퇴가 심화된 조선후기에는 불교사원 건축도 불만한 것이 없어졌고 자연 조선후기는 건축사에서 별다른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다.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논리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이해를 강요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世紀別 연구가 절실하다. 17세기를 한 시기로 설정하여 고찰해보면 17세기 불교사원 건축의 造形的 특징들은 전통적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조화·상충되는 가운데 형성된 것임이 분명해진다. 전통과 새 경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서히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키는 흐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17세기 불교사원 건축은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⁴⁾

2. 연구내용 및 방법

불교사원 건축을 통하여 17세기의 시대상을 살피기 전에 먼저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즉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對佛敎施策의 변화, 불교 교단의 위상 및 역할 변화,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교 교단 내부의 인식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불교 교단 내부에 새로운 ‘寺院觀’을 싹트게 하였을 것이며, 이 시기에 중건 내지 창건된 사원건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반건축과는 달리 불교사원의 건축은 僧匠들의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지며 불교의 경전과 교리 및 그 시기의 신앙을 설계조건으로 하여 이룩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불교도들이 꿈꾸었던 불교적 이상향 즉 佛國土觀은 伽藍의 配置와 殿閣의 構成 및 佛殿 內部空間의 造成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승장들은 단순한 기술자들과는 달리 종교적 열정을 작품 속에 담으려고 했을 터이므로 사원건축은 자연 종교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승장들은 한 사원에서만 작품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문종의 사원에서 벌어지는 건축 공사에도 참여하였다. 양식적 친연관계를 보이는 사원건축들은 어찌

2)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삼은 대표적 논고이다.

3) 『韓國建築史』(윤장섭, 1973, 동명사), 『韓國建築樣式論』(정인국, 1973, 일지사) 등의 개설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조선후기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4) 이장근, 「조선후기 佛敎寺院建築의 傳統과 新潮流」, 『美術史學研究』 202호.

면 동일 계통의 승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며,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僧統관계와 승장의 계보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17세기 佛殿의 造成背景

1. 시대적 배경

17세기는 왜란 및 호란으로 동요되었던 사회구조를 정비하고 극복한 시기였다. 이미 16세기에 시작된 朝鮮王朝의 지배질서의 변화 혹은 수정이 한층 더 본격화한 시기이며, 그것을 본격화하는 데 큰 자극제가 된 것이 임진왜란이었다.⁵⁾ 즉 17세기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문제와 함께 조선왕조적·중세적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역사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한편에서는 구질서의 붕괴를 막으려는 제도적·사상적 노력이 일어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그 밑받침으로서의 근대적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17세기라고 볼 수 있다. 격심한 전쟁 피해 속에서 종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근대 지향적 실학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중세적 사회경제 체제를 벗어나는 조짐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17세기는 중세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 이룩되는 세기라 할 수 있다.⁶⁾

그러나 새로운 질서의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7세기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가 당쟁으로 연결·비화되어 조선전기보다 훨씬 격렬한 분쟁이 일어난 시기였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담당자가 교체되고 이 과정에서 반대 政派는 제거되거나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되는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심화된 것도 17세기의 일이다.

예를 들면 광해군 즉위초 大北政權의 성립,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죽음, 仁穆大妃의 西宮幽閉, 仁祖反正, 元宗追崇, 소현세자의 죽음과 효종의 世子冊封, 두 차례의 服制禮訟과 南人政權의 등장, 경종의 元子定號와 己巳換局, 인현왕후의 復位와 甲戌換局 등은 17세기의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이면서 아울러 당쟁을 부추기고 사회를 독단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⁷⁾

5) 16세기의 시대상 혹은 사회상에 대해서는 李泰鎭,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몇 가지 문제」, 『軍史』 창간호 (1980) 및 李泰鎭, 「壬辰倭亂 극복의 사회적 動力」, 『한국사학』 5 (1983) 참조. 위 두 글은 李泰鎭,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에 재수록.

6) 崔完基, 『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2년, pp.41-42. 이 책에서는 17세기에 일어났던 사실을 정리하기보다는 17世紀史가 지녔던 역사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좋은가에 초점을 맞추어 17세기사의 인식을 규정하고 있다.

7)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이처럼 士林이 주도하는 정치권 내부에서 일어난 분파주의는 같은 유학자라도 경전 해석이 다르면 이단시하는 경향마저 띠고 있었기 때문에 顯宗 초반에 일어난 廢佛 사건은 당연한 시대 사상적 조류였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폐불 조치에 대해 白谷處能(?- 1680)이 분연히 일어나서 “諫廢釋教疏”를 올린 일은 불교사에서 유명하지만 당시의 독단적인 사상 풍토를 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⁸⁾

경제적인 면에서 17세기는 수취제도가 개편되고, 그 과정에서 役制가 변동되어 간 시기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병행하여 화폐경제가 발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분제적 지배질서가 동요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런 변화는 불교사원 및 사원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승려의 賦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민간에서의 노동력 징발이 현물 징수로 바뀌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승려의 부역노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력을 계속 무상으로 확보하려 하였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민간에서 납부하던 공물 일부를 사찰에 전가함으로써 승려의 雜役이 대폭 증가되고 이에 따라 사원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⁹⁾

2. 불교계의 동향

17세기의 역사상에 비추어 불교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시기에 불교계가 만난 가장 큰 고난은 대부분의 사원을 전란으로 인하여 잃었다는 점이다. 明宗 후반 이후 정치적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던 불교계가 전란을 당하자 군대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참전함으로써 나름의 입지를 확보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교계의 본거지인 불교사원은 초토화의 재앙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¹⁰⁾

정부에서도 불교사상은 異端視하더라도 교단의 역할 및 승려의 존재마저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기에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 또한 17세기의 상황이다. 승려들을 동원하여 築城을 비롯한 모든 정부 공사에 가장 우수한 노동력으로 삼아 부역시키는가 하면, 守城마저 승군을 편성해 책임지운 것이 이 시기 정부의 對佛敎施策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7세기는 사상사적으로 사림의 정치 참여 이후 성리학 주도체제가 강화되어 나간 시기

pp.4-5.

8) 金煥泰 集解, 「李朝代의 佛家上疏」, 『불교학보』 제10집 (1973년), pp.323-346.

諫廢釋教疏의 원문은 『韓國佛敎全書』 제8책에, 번역문은 『한글대장경』 159권에 실려 있다.

9) 17세기에 승역이 강화된 사정에 대해서는 尹用出, 「17, 18세기 徭役制의 변동과 募立制」, 1991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찰에 잡역이 더해지면서 사원경제가 피폐해 간 사정에 대해서는 呂恩暉, 「朝鮮後期の 寺院侵奪과 僧契」, 『慶北史學』 제9집(1986년)을, 사원경제의 실상에 대해서는 金甲周, 『朝鮮時代 寺院經濟研究』 (동화출판공사, 1983년)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10) 불교 교단의 호국적 활동이 불교에 내재되어 있는 호국사상을 실천한 것임을 밝힌 글로는 金東華, 『佛敎의 護國思想』 (불교신문사 출판국, 1976) 참조.

였으므로 불교계로서는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한편 捨敎入禪적인 禪風의 선양과 유교, 불교, 도교 3교의 조화에 노력하였으며,¹¹⁾ 아울러 불교의 법통설을 새로 제시하여 법통의 계승을 강조하였다. 스승으로부터 법맥을 전수하며 계보를 형성하는 전통은 禪宗 전래 이래의 오래된 관습이었지만, 이 시기에 특히 師資相承에 의한 법통의 계승을 강조하게 된 것은 性理學의 道統觀에 대응하여 불교 교단의 존립을 강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¹²⁾

參戰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긍정적 역할을 인정받은 불교 교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승려들은 淸虛休靜(1520-1604)系와 浮休善修(1543-1615)系였다. 이 두 계보의 승려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戰功을 세웠을 뿐 아니라, 종전 이후에 개시된 국가 재건 사업에 동참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¹³⁾ 일례로 四溟惟政(1544-1610)은 국가 방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山城의 修築에 착안하여 팔공산성·금오산성·용기산성·약견산성·이승산성·부산성 등을 승군을 이끌어 쌓았으며, 사원의 재건에도 관심을 보여 법주사 팔상전 재건, 통도사 계단 수축 등 사리신앙과 직결되는 축조물을 재건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부휴의 제자인 碧巖覺性(1575-1660)은 仁祖代 최대의 건축 공사였던 남한산성을 축조(1624.7-1626.11.)함과 아울러, 불사 재건에도 총력을 기울여 해인사 대장경판고(1622-1624)를 시작으로 완주 송광사 개창(1622-1631)·화엄사 재건(1630-1636)·쌍계사 재건(1641) 등으로 이어지는 불교사원의 재건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17세기 전반의 재건 공사만으로는 사원의 전반적인 복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스승의 遺命을 계승한 門徒들에 의한 제 2차 재건 공사가 17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엄사 각황전의 재건은 벽암 각성의 2세 제자이자 戰後世代인 柏庵性聰(1631-1700)이 스승의 遺志를 받들어 추진한 것이었다.

불교 교단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보인 적극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교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對佛敎 政策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그 결과 사원의 재건 노력을 왕실불교의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하였다. 사원 측에서도 조선조 역대왕실의 願堂이 설치되었거나 先王, 先后的 영정이나 위패가 모셔졌던 사실을 구실로

11) 淸虛 및 惟政의 三敎會通思想에 대해서는 金勝東, 「西山の 會通思想에 관한 연구」 『부산대 문리대논문집』 제18집 (1979), pp.290-293 및 「惟政의 思想과 行蹟에 관한 一考察」 『한국문화연구』, 창간호 (1988년) pp.173-196 참조.

12) 조선시대 불교법통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金煥泰, 「朝鮮 禪家の 法統考」 『佛敎學報』 제 22집 (1985년), pp.11-34.
 崔柄憲, 「朝鮮時代 佛敎法統說의 問題」 『韓國史論』 19호 (1988년), pp.281-293.
 許興植, 「佛祖源流의 古代와 中世의 散聖」 『교남사학』 1호 (1985년), pp.73-92.
 高翊晉, 「碧松智巖의 新資料와 法統 문제」 『불교학보』 22, (1985).

13) 그러나 당시의 승려들이 모두 참전한 것은 아니며, 승려의 본분을 지키면서 애국하는 방안으로 산중에서 기도하는 길을 택한 승려들도 많았다. 청허휴정의 제자인 逍遙太能(1562-1649)은 그런 입장을 대표하는 승려였다.

하여 왕실 및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태실이 설치된 봉산 경역의 수호 사원도 원당의 일종이었다. 선운사(1614-1620)·해인사 대장경판고·은해사 백홍암 極樂殿·흥국사 대웅전의 재건은 왕실과 지방 관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기에 17세기의 중요한 국가적, 정치적 懸案이었던 왕자의 출생을 불교사원에서 빌게 되자 재건 사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¹⁴⁾ 금산사 大寂光殿의 창건(1686), 화엄사 각황전의 재건(1699-1702) 등은 이런 사정 아래서 왕실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능하였다.¹⁵⁾

물론 이 시기에 불교 교단은 전란을 겪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극도의 피해를 입은 민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데도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잘못된 국가통치의 결과인 外侵의 희생자인 전국민을 감싸안을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17세기 재건 공사 관계 기록의 시주자 명단에는 이름 없는 대중들의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다. 고난의 시대에 겪은 아픔을 종교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갈망이 그들을 불교사원으로 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불교계는 재건된 사원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수많은 齋를 거행하였고,¹⁶⁾ 불전 안에도 정토 신앙을 담은 불화들을 빠짐없이 걸어 놓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전 내부의 분위기도 불경에 설해진 연화장의 세계나 극락정토를 방불케 할만큼 화려해져서 불전 안에서 예불 드리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불교계의 사상적 흐름은 어떠했는가? 첫째, <화엄경>의 사상이 매우 중시되었다. 이것은 한국불교계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었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거의 모든 문중, 거의 모든 승려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편양언기와 부휴선수의 문중에서 특히 중시되었다.

둘째, 儒·佛·道 三教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 시기 불교사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시기 불교수행은 대개 禪이나, 敎나, 念佛이나 하는 세 가지로 나뉘어 왔으며

14) 17세기 왕위 계승 과정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研究」(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17세기 직전인 16세기말에 宣祖妃 懿仁王后(1555-1600) 朴氏는 원자 탄생을 기원하는 불사를 많이 베풀었는데, 특히 “朴大妃求子疏” 『浮休堂大師集』에서 “동궁이 적막하고 사적이 위급하오매 오장은 칼로 찢는듯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시름의 회포를 금하지 못하와 그것이 맺히어 병이 되었사온데 신께서 그윽히 돕지 않으시면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없나이다”라고 하여 득남을 기원하는 간절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17세기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16) 浮休善修, “薦戰死亡靈疏” 『浮休堂大師集』 제 5권에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 그 망령을 위로하는 薦度齋를 山林 즉 불교 교단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王命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靜觀一禪, 『靜觀集』, 『한글대장경』 164. 에 수록된 “水陸疏”에서도 왜란과 역병, 흉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당시의 민중들의 혼을 三寶의 자비스러운 힘에 의지하여 구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천도제나 수록재를 통해 불교 교단은 민심을 위로하고 檀越들에게 善緣을 권하여 불교사원을 재건해 나갔던 것이다.

이밖에 眞言集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식이 성행되면서 밀교적 경향도 다시 대두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향들을 이론적으로 회통시키는 데 華嚴의 도리가 필요하며 실천으로는 禪의 實修가 필요했던 것이다.¹⁷⁾

이러한 흐름과는 별도로 불교미술에서는 법화경 신앙에 입각한 대웅전의 조성과 영산회상도의 조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종 일색으로 변모된 상황에서 법화경 사상도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선종에 융합되었으나, 연고지 사원에서 신앙적인 전통이 이어졌고 때로는 선종에 융합되어 복합적으로 신앙되었기 때문이다.¹⁸⁾

3. 禪宗 僧侶의 寺院觀과 17世紀 佛殿

당시 불교사상의 주류가 禪宗이었던 데서 불교미술에 禪風이 반영되어 있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에 선풍이 형상화된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는 매우 어렵다.¹⁹⁾ 오히려 경전에 설해진 장엄한 불국토의 모습이 여전히 승려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았으며, 선종에서 경계하는 寺塔의 조성에 대해서도 전쟁 이후 재건의 시기에 살았던 선종 승려들은 재건의 명분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예를 들어 淸虛休靜은 “金剛山兜率庵記”에서 禪宗과 佛事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아 부처님 상을 만들고 經冊을 만들며, 절을 짓고 탑을 세우는 것을 우리의 祖師 달마대사는 有漏라고 나무라셨다. 그러나 나무람은 하나에만 집착하는 자에게 대한 나무람이다. 유루와 無漏는 본래 두 법이 아니니 만일 무루에 집착하여 유루를 나무란다면 또한 달마의 꾸중을 듣는 바가 될 것이다. 경전에 말하기를 ‘항상 정적을 즐기는 것이 여래의 행이요 복해를 아울러 닦는 것이 바로 여래의 법이다’라고 하였으니...”²⁰⁾

금강산 도솔암의 극락전 건축 공사는 1555년에 있었던 일이며 이때는 전쟁으로 인하여 참혹하게 초토화된 사원을 재건한 것도 아니기에, 이 예로부터 임진왜란 이후의 재건 공사에 대한 선종 승려들의 태도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7) 李箕永, 「불교」 중 ‘조선중기의 불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pp.524-526. 여기서 논한 불교계의 사상적 흐름은 朝鮮中期佛敎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17세기 불교사상사를 적실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다.

18) 文明大, 「韓國의 宗教繪畫」, 『韓國의 宗教文化와 藝術』 (문화부, 1991), p.185.

19) 우리나라 선종의 역사는 통일신라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특별히 禪宗美術이라고 부를만한 장르가 형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禪宗畫가 고려시대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하나 유작은 없으며, 조선시대 화가들의 그림이 다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선종건축이라고 규정할만한 예술적 경향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는지 의문이며, 다만 禪風이 느껴지는 건물이 사원내에 다소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華嚴寺 九層庵 禪室은 뜰앞에 있는 모과나무를 거의 다듬지 않은 채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하여 선실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20) 淸虛休靜, 『淸虛堂集』, 『한글대장경』 151 (동국역경원, 1969년) p.562.

이번에는 청허의 제 1세 제자인 逍遙太能(1562-1649)이 왜란으로 소실된 龍湫寺 법당을 다시 지으면서 쓴 중창기의 내용을 살펴보자.

“아아 사람이 능히 이 법당을 창건하고 이 도량을 만들어 다시 正法을 일으키니 그렇다면 여래님의 정법의 일어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物의 이치요,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은 때의 이치이다. 지금 여러 스님네의 마음은 곧 太虛의 體로서 비고 밝고 고요하나니 유동하면서 변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체가 없는 밖에 놓고, 시간이 없는 이전에 뛰어나 잠깐 천지에 머물러 생사를 무시하거늘, 어찌 사물의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시간의 현재와 과거를 논하겠는가? 그러므로 여러 스님네의 分上에서는 법계가 한 절이요 천지가 한 부처이며 고금이 한 꿈일 뿐이다”

라고 하여 정법의 도량으로서 사찰 재건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 物·時·場을 넘어서는 법계나 부처만이 스님네의 관심사라고 역설하고 있다. 승려들의 문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寺院觀은 거의 모든 사원이 전소되어 있던 당시의 비참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상황 자체를 달갑게 받아들여 극복하려는 정신적 의지의 일면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逍遙는 記文의 말미에 쓴 銘에서 재건된 사찰을 보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산의 신령스러움은 천지의 뿌리요 물의 깊음은 고금의 근원이다. 그 가운데 寶殿이 있어 궁륭의 제도가 龍蛇의 병화(壬辰年과 癸巳年 즉 1592-1593년의 왜란)를 만나 비참하게 초토화되었도다. 오늘에 다시 세우니 엄연히 天宮과 같아서 발돋움한 듯 그 날개가 허공에 바로 솟았으니 아아 뛰어난 공의 넓고도 큼이여. 이 법당과 이 공은 물처럼 멀고 산처럼 길어라.”²¹⁾

이러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 불교사원의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던 碧巖覺性은 글을 통해 사원관을 남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건 활동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실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벽암의 스승인 浮休는 참전하지 않은 채 隱居, 修道하면서 제자 기르기에만 전념하였지만, 전란 이후에 국가가 태평하고 불교가 중흥되기를 갈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燔瓦慶讚疏’류의 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불사에 동참할 것을 시주자들에게 권하곤 하였으니²²⁾ 승주 松廣寺의 재건은 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²³⁾ 사실

21) 『龍湫寺法堂重創記』, 『한글대장경』 164권, 동국역경원, 1978년, pp.177-178. 이 글에 의하면 용추사는 1630-1631년에 소요와 天覺의 주도로 連珠(지붕잇기)·玄淨(단청)·智鑑(장륙상)·法倫(佛器) 등의 僧匠이 참여하여 중창되었다. 용추사는 1949년 공비 토벌 당시 국군의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1961년에 일부가 중건되었다.

22) 浮休善修, 『燔瓦慶讚疏』, 『浮休堂大師集』 제5권에서 “천 마을을 돌면서 斗粟을 거두고 만 집을 찾으면서 寸絲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주 얻기의 어려움과 자신이 이 일에 바친 정열을 역설하고 있다.

23) 綺山 撰, 『松廣寺沿革』, 『曹溪山松廣寺史庫』 (아세아문화사 韓國寺誌叢書, 1983), pp.64-65. “第四重創…自三十四辛丑春……重建 然 僧殘寺廢 不能修補 於時邀請 浮休禪師 於智異山 再三懇至 師感其懇誠辭不獲已 與門徒覺性等四百餘人……”이라고 하여 1601년에 송광사 주지 응선화상이 재건을 시작했으나 절의 형편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리산에 주석하고 있던 부휴에게 도움을 간청하니 제자 400여 명과 함께 와서 송광사의 중창을 완료하였다.

그의 詩 가운데 많은 작품이 전쟁 직후에 참혹하게 황폐된 절의 모습을 읊은 것인데 “풀 숲에 누워 있는 石燈과 푸른 이끼가 가득 낀 玉階”를 보면서 사원 재건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의 심정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²⁴⁾

청허휴정 이래 문집을 남긴 禪僧들 대부분이 佛寺를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음을 그들이 지은 勸善文·募緣文·重修記 등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疏·記·勸詞 등을 많이 남긴 月渚道安(1638-1715)의 불사 재건에 대한 생각은 더욱 적극적이다. 1674년에 중수한 香山 東觀音寺 法堂에 대한 기문을 쓰면서,

“돌아보면 불법의 隆替는 실로 寺宇의 흥폐에 달린 것이다. 祇園이 給孤城 안에 빛날 때 법은 八諦를 굴렸고, 법당이 藥山洞 위에 쓰러졌을 때 禪은 한 가지가 꺾이었고. 桑林의 쓸쓸함을 슬퍼하니 그 누가 계승하여 연설하며 법문이 아주 단김을 한탄하니 어떤 사람이 두드려 열겠는가? 水石이 빛이 없고 烟霞가 빛을 잃었도다.”

라고 하여 불법의 성쇠가 사원건축의 흥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祇園精舍까지 예로 들며 법당의 중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²⁵⁾ 도안은 특히 일반 俗人들에게 시주를 권하기 위해 지은 권선문에서 불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공덕을 佛敎史를 인용해가면서 역설하여 마침내 시주를 얻어내는 집요함을 글에 나타내고 있어서 주목된다.²⁶⁾

그러면 이 시기에 재건된 사원은 사상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졌던 것일까? 재건을 주도한 승려들은 소실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였으며, 사찰의 主佛殿을 가장 먼저 건립하고 이어서 法俱를 갖추고 僧舍를 지어 나갔다. 따라서 주불전을 위주로 사상적 경향을 살필 수밖에 없다.

첫째, 법주사나 화엄사처럼 미륵불이 주존인 법상종계 사원에서는 재건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지 않고 가장 먼저 미륵전을 재건하였다. 이로 보아 각 사원은 전통을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적 경향인 법화경 신앙과 화엄경 신앙에 힘입어 각각 대웅전과 대적광전이 많이 지어지게 되었다.

셋째, 毘盧舍那三身佛을 봉안하되 불전의 이름은 대웅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법주사 대웅보전)가 있는가 하면 大雄大光明殿이나 大雄常寂光殿처럼 대웅전과 대적광전을 합稱한 불전이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 화엄경 신앙이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넷째, 정토 신앙을 대표하는 극락전이 주불전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전란 이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선종과 정토관이 조화된 결과이기도 하다.²⁷⁾ 화암사 극락전, 백홍암

24) 浮休善修, 앞 책, 제 2권, 「廢寺를 지나면서」

25) 月渚道安, 「香山東觀音寺法堂蓋瓦重修記」, 『月渚堂集』, 『한글대장경』 166.

26) 月渚道安, 「奉恩寺法堂佛像勸文」 및 「東山寺佛像改金功德供養布施引勸說」, 『月渚堂集』 『한글대장경』 166.

27) 權奇棕, 「韓國佛敎에 있어서 禪과 淨土의 關係」, 『佛敎學報』 제 26집 (1989), pp.73-92.

극락전 등이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²⁸⁾

다섯째, 통도사 계단 및 법주사 팔상전은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었으므로 전란 직후에 가장 먼저 재건되었으며, 통도사 계단 앞에는 사리각을 마련하여 ‘대웅전’이라 이름하였다. 진신사리를 중요시한 태도와 아울러 화엄경에 입각한 적멸도량 즉 불상을 봉안하지 않은 ‘無佛殿’을 舍利閣이란 이름으로 건축하였던 것이다. 주불전의 건립 동향에서 엿보이는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당시 불교계의 사상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III. 17世紀 佛殿의 再建

終戰 직후인 17세기 불교사원의 재건 사업에 왕실이나 지방 관부의 즉각적인 지원이 뒤따랐던 까닭은 승병의 참전에 힘입어 나라를 구했다는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임은 물론 명종·선조대를 거치면서 집권관료층을 비롯한 모든 유교 세력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왕실에서만은 불교계를 지원하고 성장시켰던 전통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불교 교단은 전쟁의 참화를 입어 全燒된 사원을 어떻게 재건해 나갔던 것일까? 전후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아래서 불교사원을 재건하는 일에 재정적 후원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누가 적극적으로 施主者가 되어 준 것일까? 조선왕조의 억불 정책 하에서도 꾸준히 승불 태도를 유지해 온 왕실은 재건역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일까?

17세기는 재정 및 인력이 모두 부족한 시기였으나 복구의 필요는 어느 때보다 한층 더 강렬했을 것이다. 현존하는 이 시기의 건물은 20여 채에 이르고 문화재로 지정·보호·수리된 결과 실측조사보고서가 활발하게 간행되어 있고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상량문 등의 일차 사료들이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건축가와 후원자 및 건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을까?

다음은 현존하는 17세기의 주요 불전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재건의 실상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는 17세기를 전후 두 시기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재건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마련하였다. 전반기는 1600-1649년(선조 후반-인조대), 후반기는 1649-1700년(효종-숙종 전반)에 해당된다.

28) 靜觀一禪(1533-1608)의 『靜觀集』, 『한글대장경』 164, pp.191-266. 에는 「彌陀觀音勢至點眼文」이 실려 있는데, 어떤 절에 조성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왜란으로 소실된 절에 새로 불전을 짓고 불상을 조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말미에 主上(宣祖)과 先王·先后的 복을 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사에 왕실이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表 1> 17세기의 佛殿 및 佛寺 再建 年表

王代	西紀	건물 이름	자 료	
宣祖 34	1601	통도사 대웅전 및 삼문	『通度寺誌』	
	1602-5	법주사 팔상전	『舍利塔誌』	
	1603	용연사 중건		
	1604-5	백률사 중건	『백률사중수기』	
	1605-6	화암사 극락전 및 우화루	『花巖寺實測調查報告書』	
	1605	장안사 법당 중창	『금강산장안사주종명』, 『청허집』	
	1601-9	송광사 재건(승주)	『曹溪山松廣寺史庫』	
	光海 2	1610	봉인사 창건	
		1612-13	부석사 무량수전	중수목서명(『上樑記文集』)
1614		선운사 대웅전	『禪雲寺重新記』	
1614		갑사 정문	『갑사정문중수상량문』	
1617		관룡사 대웅전	목서(『考古美術』 6권 10,11호)	
1618		부석사 무량수전	寶蓋 墨書(『上樑記文集』)	
1618		법주사 대웅보전	상량문(『考古美術』 102호)	
1621		전등사 대웅전	『傳燈本末寺誌』	
1622		해인사 수다라장	목서(『考古美術』 6권 1호)	
1622-31		완주 송광사 창건	完州松廣寺開創碑	
仁祖 2		1624	해인사 대장전	목서(『考古美術』 6권 1호)
		1624	귀신사 중창	『無竟集』
		1626	법주사 팔상전	상량문(『考古美術』 9권 11호)
		1630-36	화엄사 대웅전	『華嚴寺事蹟』
		1635	금산사 미륵전	『金山寺事蹟』
	1635	환성사 대웅전	『太古寺寺法』	
	1636	개암사 대웅전	『開巖寺事蹟』	
	1641	쌍계사 대웅전(하동)	『벽암 행장』, 『白谷集』	
	1641	송광사 대웅전	『불상조성시주록』(腹藏文)	
	1642-4	승림사 정혜원	『上樑記文集』, pp.99-102.	
	1642-4	석왕사 대웅전	『天鏡集』	
	1643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實測調查報告書』	
	1643-5	통도사 대웅전	『通度寺誌』 및 『上樑記文集』	
	1644	상원사 중수	『상원사중수기』, 『百軒先生集』	
	孝宗 1	1650	마곡사 재건	『實測調查報告書』
1653		운문사 대웅보전	『實測調查報告書』	
1657		신흥사 대광전(양산)	『上樑文集』	
1658		범어사 대웅전	上樑墨書	
縣宗 1	1660	전등사 장사가 · 선원각	『傳燈本末寺誌』	
	1661-8	직지사 천불전	『직지사천불전중창기』	
	1665	용문사 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제12호	
	1671	신흥사 중수	『朝鮮寺刹史料』 上	
肅宗 4	1674	봉국사 신창	『奉國寺新創記』, 『白谷集』	
	1678	율곡사 대웅전	목서 『上樑文集』	
	1686	금산사 대적광전	『重修上樑樑間錄』, 『金山寺誌』	
	1690	흥국사 대웅전(여수)	『중수사적비문』	
	99-1703	화엄사 각황전	『상량문』, 『華嚴寺事蹟』	
	1704-5	통도사 사리탑	『通度寺誌』	

1. 17世紀 前半의 再建

1) 宣祖代·光海君代의 再建

선조대 후반 및 광해군대에 걸친 24년간은 왜란으로 전소된 불교사원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비로소 시작된 시기이다. 이때는 이른바 佛法僧 三寶 사찰로 불리는 通度寺·海印寺·松廣寺의 재건 노력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찰이 전쟁으로 입은 참혹한 피해를 복구하고 하루빨리 佛殿과 僧舍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국가적으로도 종교, 사직 및 궁궐을 복구하는 한편 국가 기간 시설인 관청·학교·역원·읍성 및 산성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興役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山僧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工役에 강제로 동원었고 사원경제를 지탱해 주던 토지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으며, 佛事를 일으킨다 해도 시주를 얻기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절집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와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사원의 복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원 재건의 노력은 계속되어 이 시기에 많은 사원들은 불전과 僧舍만을 갖춘 소규모 절로 부분적이거나 복구되었다.²⁹⁾

이밖에 전쟁의 참화는 겨우 모면했으나 정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건물이 크게 퇴락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현존하는 고려말 조선전기의 목조 건물 가운데 부석사 무량수전(1612-1613년 改椽)·봉정사 대웅전(1601년 重修)·해인사 수다라장(1622년 重營) 및 법보전(1624년 重營) 등도 이 시기에 보수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에 창건된 사찰도 있어서 주목된다. 光海君이 1598년에 태어난 세자의 壽福과 昌盛을 기원하기 위해 1619년(광해 11)에 개창한 奉印寺가 그것이다. 또 1622년에 창건 공사를 시작한 완주 송광사도 이 시기 다른 사원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창건 불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재건된 불전으로 지금까지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재건 공사의 실상을 전해 줄 문헌 사료도 풍부한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17세기의 1/4분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재건 공사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은 17세기 불전의 재건 공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된다.

(1) 宣祖代 前半(1567-1592)

조선시대 佛敎史에서 16세기 후반은 明宗代(1545-1567)에 文定王后(1501-1565)의 섭정

29) 17세기의 재건역에 관심을 두고 주택·관아·사찰·궁궐·社廟 등을 중심으로 17세기 건축사를 조명하려 한 연구로는 『壬辰倭亂 以後의 造營活動에 대한 研究』-한국건축사총서 2- (韓國文化財保存技術進興協會, 1992.11.)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서는 건축 유형별로 재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을 뿐 17세기 건축에 대한 종합적 해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拙稿, 「경희궁의 역사」, 『慶熙宮址第二次發掘調査報告書』(서울특별시, 1987)에서도 전쟁 이후의 건축과제와 조영활동에 대해 궁궐건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왕실의 후원을 받은 虛應堂 普雨(? - 1565)가 불교의 부흥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이때에는 奉恩寺·淸平寺·檜岩寺·雙溪寺 등 많은 사원 건축이 증창되었으며 아울러 수많은 불화가 조성되었다.³⁰⁾ 그러나 불교 재흥의 노력은 문정왕후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보우의 他殺 그리고 불교계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霧散되었다. 그 결과 世祖(1455-1468) 이후 약 80년만에 좋은 시기를 맞이했던 불교계는 다시 抑佛의 분위기 속에서 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³¹⁾

그러나 명종의 뒤를 이은 宣祖代(1567-1608)에도 새로운 사원건축의 創建과 같은 대규모 佛事は 행해지지 않는 않았으나 보현사를 비롯하여 왕실 원당이 집중분포되어 있는 금강산 일대 사원의 복구 공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³²⁾ 또한 왕실 일가에서 發願한 많은 佛畫들이 당시 최고의 기량을 가진 화가들에 의하여 많이 그려졌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³³⁾

선조대 후반의 불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조대 전반(1567-1592)의 불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17세기 불전을 고찰하기에 앞서 16세기 불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세기 불전으로 현존하는 건물은 한 채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한국동란으로 소실된 청평사 극락전(1555년 건립)에 대해서는 일제침략기에 조사한 자료가 남아 있어서 16세기 불전의 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조대 전반기에 행해진 불사에 대해서는 청허 휴정의 <淸虛堂集>을 비롯한 승려들의 文集과 당시까지 親佛敎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文人들의 文集에 그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문헌으로나마 당시 불교 사원의 건축 공사와 佛殿의 莊嚴

30) 淸平寺에 대해서는 杉山信三, 『韓國中世の建築』(東京:相模書房, 1984, pp.410-424 및 『淸平寺實測調査報告書』(강원도 춘성군, 1984.12) 참조. 檜岩寺에 대해서는 崔成鳳, 「檜岩寺의 沿革과 寺址 調査」, 『佛敎學報』 제9집, 1972, pp.159-201. 『檜岩寺址 現況調査 一次調査報告書』(경기도 양주군, 1985.7.) 참조. 奉恩寺는 『奉恩寺 實測調査報告書』(서울특별시, 1990.12.), 雙溪寺는 淸虛休靜, 「智異山雙溪寺重創記」, 『淸虛集』 卷三 記 참조. 명종대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洪思誠, 「조선중기 불교 중흥운동고」, 『東國思想』 10·11 합집 (1978). 및 金廷禧, 「朝鮮朝 明宗代의 佛畫研究」, 『歷史學報』 제110집 (1986) pp.145-173 참조.

31) 정부 정책상 불교에 대한 억압이 강화된 가운데서도, 왕실 여인들의 崇佛은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명종이 죽은 뒤 명종비 仁順王后 沈氏는 금강산의 한 절에서 명종을 위한 薦度齋를 거행하고 無遮의 法筵을 베풀었다.(淸虛休靜, 「代沈大妃薦大王疏」, 『淸虛集』)

32) 금강산 일대 사원: 청허휴정, 「金剛山兜率庵記」, 「楓岳山頓道庵記」, 「金剛山長安寺新鑄鐘銘」, 「明寂庵慶讚疏」, 묘향산 일대 사원: 청허 휴정, 「妙香山元曉庵記」, 「妙香山法王臺金仙臺二庵記」, 「普光殿蓋瓦慶讚疏」.

33) 朴銀卿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宣祖代에 조성된 불화로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불화가 22점이나 된다. (『李朝前期 15, 16世紀佛畫作品目錄』) 한편, 현재 작품은 전해지지 않지만 許均의 문집인 『국역 성소부부고』 제 16권에 수록된 「重修兜率院彌陀殿碑」에 의하면 1549년(명종 4)에 덕흥대원군(宣祖의 부친) 부인 정씨가 발원하고 당시의 명화가인 이배런 및 그 아들 이홍효가 그린 「반야용선도」가 미타전 서벽에 장엄되었으며, 훗날 1602년에 다시 미타전 동벽에는 宣祖妃 懿仁王后가 발원하고 화가 李禎이 그린 「白衣居士圖」가 장엄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선조의 모친과 부인이 한 절의 미타전에 계속해서 불화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살펴볼 수 있다.

(2) 宣祖代 後半(1600-1607)

선조대 후반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이지만 건축공사가 시작된 것은 빨라야 전쟁이 끝나고 倭軍뿐 아니라 明軍이 완전히 철수한 1598년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601년의 통도사 계단 보수를 시작으로 전개된 재건 공사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특히 범주사 팔상전은 해체·수리 과정에서 출토된 舍利塔誌와 목서명이 알려져 있고, 하양식 구조를 가진 국내 유일의 건물인 화암사 극락전도 그 중요성 때문에 일찍이 해체·수리를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 목서가 밝혀지게 되었다.³⁴⁾

범주사 팔상전은 塔誌銘에 의하면 왜구에 의해 소실된 것을 1602년부터 1605년에 걸쳐 재건하였는데 이때 朝鮮國僧大將 裕淨(=松雲 惟政)이 공사를 총괄 지휘했음을 밝히고 있다.³⁵⁾

(3) 光海君代의 再建

광해군대에는 재위 기간 내내 궁궐건축 공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³⁶⁾ 이 대규모 건축 공사에는 물론 승려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³⁷⁾ 따라서 奉佛과 修道를 행할 사원의 재건은 요원한 숙제일뿐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 재건된 불전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고창 선운사 대웅전(1614년)³⁸⁾·관룡사 대웅전(1617년)³⁹⁾·범주사 대웅보전(1618년)⁴⁰⁾·전등사 대웅전(1621년)⁴¹⁾ 등 뿐이다.

이밖에 불전은 아니지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인 해인사 수다라장(1622년)이 남아 있는데 수다라장은 범보전(1624년)과 함께 八萬大藏經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서 이 시기에 重營되기는 하였으나 양식적으로 조선전기의 건물로 해석되고 있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34) 『完州花巖寺極樂殿實測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82), pp.128-130.

35) 崔淳雨, 「法住寺 捌相殿의 舍利裝置」, 『考古美術』 100호, pp.468-471.

36) 光海君代의 宮闕建築의 再建 및 創建에 대해서는 拙稿, 「慶熙宮의 歷史」, 『整備, 復原을 위한 慶熙宮址 第二次發掘調査報告書』(檀國大學校 博物館, 서울특별시, 1987년), pp.17-70. 참조.

37) 17세기의 승려 부역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로는 尹用出, 「17,18세기 徭役制의 變動과 募立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38) 「禪雲寺重新記」(1698) 및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1707) 등이 『불교학보』 3·4합집 중 「全羅北道寺刹史料集」에 실려 있다.

39) 「觀龍寺二重創上標記」, 『考古美術』 63·64합집호, pp.141-142. 1965년 8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중앙간 중도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40) 「朝鮮國忠淸道報恩縣東嶺俗離山大法住寺大光明寶殿四度重修上標文」(1715년), 『考古美術』 102호 및 中觀海眼,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像記」 <중관대사집>.

41) 「樸間錄」, 『傳燈寺本末寺誌』.

42) 『한국의 고건축』 제1호(문화재관리국, 1973년)에 실린 보고서와 金東賢, 「李朝初期의 木造建築樣式에 대하여」(1) 참조.

해체·수리 당시에 발견된 上樑墨書는 광해군대의 佛事造營에 관한 가장 상세한 史料여서 주목을 요한다.⁴³⁾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광해군대 왕실이 불교계에 지극히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⁴⁴⁾

또 하나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왕세자의 원당으로 奉印寺가 창건되고 전북 완주에서는 송광사가 개창되고 있다는 점이다.⁴⁵⁾ 봉인사는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에 있는 절로서 창건 당시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창건 관련 사료도 전혀 전하지 않는다. 다만 1987년에 일본에서 반환되어 온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과 관련 유물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원당 창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 주고 있을 뿐이다.⁴⁶⁾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⁴⁷⁾

<表 2> 光海君代의 佛殿 再建 年表

王代	西紀	건물 이름	자료
光海 2	1610	봉인사 창건	중수목서명(『上樑記文集』) 목서(『考古美術』 6권 10, 11호) 寶蓋墨書(『上樑記文集』) 상량문(『考古美術』 102호) 『傳燈本末寺誌』 목서(『考古美術』 6권 1호) 完州松廣寺開創碑
4-5	1612-13	부석사 무량수전 중수	
9	1617	관룡사 대웅전 재건	
10	1618	부석사 무량수전 중수	
	1618	법주사 대웅보전 재건	
13	1621	전등사 대웅전 재건	
14	1622	해인사 수다라장 중영	
	1622-31	완주 송광사 창건	

43) 아래 자료들은 모두 『고고미술』 63·64합집호 및 『한국의 고건축』 제1호에 실려 있다.

- 「修多羅藏上樑文」(종도리 및 받침장혀에 적힌 목서): 1965.5.20. 발견.

- 「法寶殿重營上樑文」(종도리 하부 紙本 목서): 1965.5.20. 발견.

- 「法寶殿上樑文」(종도리 바닥에 적힌 목서): 1964년 가을 발견.

44) 왕과 왕비의 존호를 시주자 명단에 사용하고 있는 점, 광해군 내외 및 상공이 입던 직령·단삼·홍삼 등을 상량문과 함께 도리 속에 내장한 점, 왕실의 내명부가 모두 불사에 참여한 점 등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한편 수다라장을 상량한 지 6개월도 못된 1623년 3월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었는데, 1624년 4월에 상량된 법보전에서조차 여전히 광해군 왕실의 명단이 적혀 있어서 당시 해인사와 광해군 왕실의 밀착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강근,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75-83.

45) 광해군은 부휴선수를 존경하여 궁궐 내전에 초빙하여 설법을 청해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며, 봉인사에 齋를 설할 때도 그를 證明으로 삼았다고 한다. 白谷處能, 『大覺登階集』 중 「追加弘覺登階碑銘并書」, 『한글대장경』 166권, p.276. 부휴가 입적한 해가 1614년이므로 봉인사가 왕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세자의 원당을 건립하고 세존사리탑을 세운 1619년보다 이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46) 봉인사와 그 사리탑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畿內寺院誌』, 40. 奉印寺, 경기도, 1988. 黃壽永, 「日本大阪美術館의 李朝舍利塔」, 『考古美術』 2권 10호, 1961.10. 李浩官, 「奉印寺 舍利塔」,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2권(1987년), pp.435-444.

47) 광해군대에 재건된 불전에 대해서는 선운사 대웅전·관룡사 대웅전·법주사 대웅보전·전등사 대웅전·해인사 대장경판교 등을 중심으로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64-83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2) 仁祖代의 再建

인조대에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불전은 전대에 비하면 많다고 하더라도 고작 8체에 불과하다. 물론 이 숫자는 17세기 3/4분기인 효종·현종대와 4/4분기인 숙종대 전반기의 불전이 각각 3체 정도만 남아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것이기는 하다. 그리고 현재 불전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건축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불교사원의 재건 및 창건 공사가 많은 사찰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문헌 및 금석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완주 송광사 창건(1622년부터 10여 년간)⁴⁸⁾·김제 歸信寺 중창(1624년)⁴⁹⁾·여천 홍국사 재건(1624년)과 홍교 축조(1639년)·奉恩寺 재건(1637)⁵⁰⁾·안변 석왕사 대웅전 중건(1642-1644년)⁵¹⁾·상원사 중수(1644년)⁵²⁾·백운사 중수(1631-1640년)⁵³⁾·속리산 백련암 중수(1642-1647년)⁵⁴⁾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에 세워져 이때까지 보존되어 온 건물의 중수도 행해졌는데, 서산 개심사 심검당 중창(1627년) 및 대웅전 중창(1644년)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⁵⁵⁾

한편 불교사원 이외의 국가적인 건축 공사도 광해군대에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으나 대규모 축성역, 궁궐 중건역, 산릉역 등이 인조의 재위 기간 내내 펼쳐졌다. 우선 축성역을 보면 평양성 축성(1624년)·남한산성 축성(1624년 7월-1626년 11월)·무주 적상산성 축성(1640년) 등을 벌이는 등 대규모 건축공사가 시행되었다. 평양성 축성에도 승군이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남한산성 축성에는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된 碧巖覺性과 應聖의 지휘하에 8도 승군이 동원되었으며, 적상산성 수축에도 무주현을 비롯한 인근 7읍의 승군이 동원되었다.⁵⁶⁾ 축성뿐 아니라 守城의 역할도 승려에게 부담지우기 위해서 정부는 산성 안에 僧

48) 「松廣寺開創碑」(書: 義昌君, 撰并篆: 申翊聖), 『朝鮮金石總覽』 下, pp.868-873 및 子秀, 『無竟集』 卷二, 「全州終南山松廣寺事蹟詞引」.

49) 子秀, 「全州母岳山歸信寺事蹟詞引」 『無竟集』 卷二 『한국불교전서』 10책.

50) 白谷處能, 「奉恩寺重修記」 『大覺登階集』 下, 『한글대장경』 166 및 權相老, 「朝鮮禪宗甲利大本山京畿道廣州郡修道山奉恩寺事蹟碑銘并書」, 『韓國寺刹全書』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봉은사를 중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禪和敬林인데 그는 벽암각성의 1세 제자이므로 봉은사 역시 벽암 계열에서 행한 사원 재건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1) 海源, 「釋王寺事蹟後跋」, 『天鏡集』 下卷, 『한글대장경』 165, pp.426-428. 1641년의 화재로 소실된 것을 벽암각성의 주도 아래 1642-1644년에 걸쳐 중건하였다.

52) 李景奭, 「上院寺重修記」, 『白軒先生集』 卷三十一.

53) 李敏求, 「白雲山白雲寺重修記」, 『東州集』 卷三.

54) 李敏求, 「俗離山白蓮庵重修記」, 『東州集』 卷三.

55) 개심사 대웅전 목서명은 1941년 보수공사시에 발견되었으며, 杉山信三, 『高麗末朝鮮初木造建築に於ける研究』(油印本)에 수록되었고, 다시 1964년에 엮은 『韓國古建物上標記文集』에 실렸다. 이 목서명에 의하면 1484년(성종 15)에 중수되고, 1644년(인조 22)에 중창되었는데, 이때의 大木은 戒心이었다. 한편 시주질 명단은 以下略이라고 하여 신지 않았는데,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원문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오늘날 연구상의 손실은 적지 않다. 1975년에 발간된 『韓國의 古建築』 제 2호에는 목서명과 함께 사진 및 간략한 실측도면이 실려 있다.

56) 尹用出, 「17·18世紀 邑역제의 變動과 募立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8), pp.129-130. 축성역에 승군이 동원된 계기는 왜란 중의 승병의 활동과 유관하며 후방의 방비를 위해 승군을 동원했던 것으로

營寺刹을 건립하게 하였는데, 남한산성 안에는 2개 사찰이 증축되고 7개 사찰이 창건되었다.⁵⁷⁾ 그러나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僧營 사찰의 건물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⁵⁸⁾

또 선조·광해군대에 걸쳐 막대한 物力으로 재건된 궁궐 가운데 창덕궁은 인조반정시에 대부분 소실되어 인조말년인 1647년에 가서야 겨우 중건되었다.⁵⁹⁾ 이 공사에는 특히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5도의 僧軍 2,840명이 징발되었다.⁶⁰⁾ 또한 창경궁은 1624년 이괄의 난 때 內殿 일곽이 소실되어 1633년에야 중건되었다.⁶¹⁾ 게다가 인조는 창덕궁 후원을 조성하는 데 남다른 정열을 쏟아서 현재 비원이라 불리는 후원을 거의 완성시키기도 하였다.⁶²⁾

僧軍을 대규모로 賦役시킨 山陵役도 3차례나 있었는데 宣祖穆陵遷陵役(인조 8년:1630)·仁穆王后山陵役(인조 10년:1632)·昭顯世子墓所役(인조2년:1645) 등에는 각각 1000명, 1000명, 1500명씩의 승군이 동원되었다. 1624-1626년의 남한산성 축성에 팔도 승군이 반강제적으로 총동원된 이래 국가와 지방관아의 건축 공사에 승군의 징발이 일반화된 시점도 仁祖代라고 해석되고 있다.⁶³⁾

광해군대에는 전란 직후의 궁핍한 사원경제와 정부의 다대한 재건 공사로 인해 불교 사원의 재건이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전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인조대에 이르러 조금은 호전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역이란 명분하에 끊임없이 승군으로 징발당하는 처지에서 僧團이 적극적으로 불교사원의 재건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벽암각성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어서 광해군 말년의 해인사 대장경판고 중

해석되고 있다.

- 57) 『南漢誌』, 廣州郡, 국역본, pp.81-85. 한편 17,18세기에는 山城이나 關隘와 관련된 사찰이 37개 지역, 39개 산성(관애, 읍성 포함)에 97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呂恩暉,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大邱史學』 제28집, pp.49-87 참조.
- 58) 전주 위봉산성 안의 威峰寺 및 무주 적상산성 안의 安國寺 정도에 옛 건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위봉사 보광명전은 신영훈 선생의 양식적 고찰에 따르면 숙종조 이전에 세워진 건물로 판단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내부의 수리가 심하여 장엄을 고찰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영훈, 「完州 威峰寺 普光明殿」, 『考古美術』 136, 137 합집.
- 59)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장서각 소장).
- 60) 尹用出, 앞 논문, p.128 <표 5> 참조.
- 61) 『昌慶宮修理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 62) 『宮闕誌』 및 朱南哲, 『비원』 (대원사, 1990년), p.18 참조.
- 63) 尹用出, 앞 논문, p.125. 한편 三道水軍統制使營의 건물인 충무 洗兵館은 1963년도 중수시에 발견된 「紙本 墨書 重修上樑文」, 『고고미술』 통권 40호에 의하면 1646년에 중건되고 1872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46년의 중건 공사는 통제사 金應海(1588-1666)의 지휘 아래 前郡守 黃敏德이 監成軍官, 前萬戶 安敬誠이 開基軍官을 맡고 禹鳴鼎·徐成男 등이 色吏를 맡는 등 관청에서 주도하였으나, 石手를 제외한 목조건물 분야는 모두 승려가 맡아서 처리하였다. 즉 木手に 時卞·善義·學宗, 柱邊手に 贊悟, 構尾邊手に 學連, 道里邊手に 靈日, 緣木邊手に 德文·世日, 大樑邊手に 性強 등이 활약하였다. 이 가운데 學宗은 화엄사 재건의 주역인 98대덕의 한 사람이며 화엄사 대웅전 재건역(1636년)에 山中大德으로 참여하였고, 1663년 화엄사 벽암대사비 건립에도 참여한 승려이다.

영(1622년)을 시작으로 남한산성 축성 및 9개 승영 사찰의 신축과 증축(1624-1626년)·완주 송광사 창건(1622-1631년)·화엄사 재건(1630-1636년)·하동 쌍계사 재건(1641년)·안변 석왕사 재건(1642-1644년) 등으로 이어지는 건축공사를 끊임없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남한산성을 쌓을 때 팔도도총섭을 역임한 경력이 정부에서나 승단 내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재건 불사에 화주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한 불사 재건 사실을 연표로 정리한 것이 <表 3>이다.⁶⁴⁾

<表 3> 仁祖代의 佛殿 再建 年表

王代	西紀	건물 이름	자료
仁祖 2	1624	해인사 대장전	墨書(『考古美術』 6권 1호) 『無竟集』
	1624	귀신사 중창	
	1624	여천 홍국사 재건	
4	1626	법주사 팔상전	上標文(『考古美術』 9권 11호)
5	1627	서산 개심사 심검당 중창	
8	1630-36	화엄사 대웅전	『華嚴寺事蹟』
	1631-40	백운산 백운사 중수	
13	1635	금산사 미륵전	『金山寺事蹟』 『太古寺寺法』
	1635	환성사 대웅전	
14	1636	개암사 대웅전	『開巖寺事蹟』
15	1637	봉은사 재건	『奉恩寺重新記』, 『白谷集』
17	1639	여천 홍국사 홍교 축조	
19	1641	쌍계사 대웅전(하동)	『碧巖 行狀』, 『白谷集』 『佛像造成施主錄』(腹藏文)
	1641	송광사 대웅전	
20	1642-4	승림사 정혜원	『上標記文集』 『天鏡集』
	1642-4	석왕사 대웅전	
	1642-7	속리산 백련암 중수	
21	1643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實測調查報告書』 『通度寺誌』 및 『上標記文集』
	1643-5	통도사 대웅전	
22	1644	상원사 중수	『上院寺重修記』, 『百軒先生集』
	1644	서산 개심사 대웅전 중창	

2. 17世紀 後半의 再建

1) 孝宗·顯宗代의 再建

17세기 후반의 앞 25 년간은 효종과 현종이 연이어 재위한 시기이다. 효종은 淸으로부터 터 받은 치욕을 씻기 위해 10 년간의 재위 기간 내내 北伐計劃을 추진하면서 軍備를 강화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강화도를 비롯한 각지의 산성을 補修하였다. 특히 1652년(효종 3) 9

64) 인조대 불전의 재건에 대해서는 법주사 팔상전·금산사 미륵전·화엄사 대웅전·백홍암 극락전·통도사 대웅전 등을 중심으로 이강근, 앞 논문, pp.87-110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월에는 강화도에 行宮을 건축하였다.

한편 궁궐 內殿에도 관심을 보여 창덕궁 壽靜殿을 고쳐 지었는가 하면, 창덕궁 안 흥경각터에 萬壽殿·春輝堂·千慶殿 등 내전을 새로 지었다.⁶⁵⁾ 이때 공사에 동원된 賦役 僧軍은 昌德·昌慶宮修理役(1652년)에 1,200명, 昌德宮萬壽殿修理役(1655-1656년)에 3,64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인조대 이후 군현의 수령을 통해 팔도 승군을 수시로 징발했던 사정을 여실히 보여 준다.⁶⁶⁾ 또 앞 시기에 이어서 山陵役에도 승군이 대거 동원되었는데 仁祖長陵山陵役(1649년)에 팔도 승군 1,000명이 동원되었다.⁶⁷⁾

(1) 孝宗代(1649-1659년)의 再建工事

이처럼 자주 승군으로 동원되어서인지 아니면 불교사원의 급박한 재건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인지, 효종대에는 주목할만한 대규모 사원 재건은 없었던 듯하다. 다만 공주 마곡사·청도 운문사⁶⁸⁾·양산 신흥사⁶⁹⁾·동래 범어사⁷⁰⁾ 등에서 재건 및 창건 공사가 행해졌고 그 결과 운문사 대응보전·신흥사 대광전·범어사 대응전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⁷¹⁾

<表 4> 효종·현종대 불사 재건 연표

王代	서기	건물 이름	출전	비고
孝宗1	1650	麻谷寺 再建	『실측조사보고서』	
	4 1653	雲門寺 大雄寶殿	『실측조사보고서』	
	8 1657	梁山 新興寺 大光殿	묵서(『상량문집』)	
	8 1658	梵魚寺 大雄殿	상량묵서	
顯宗 6	1665	龍門寺 大藏殿	상량문	慈壽院 革破處能, “諫廢釋教疏”(1663년)
	12 1671	神勒寺 重修	중수사적기 2종	
	15 1674	奉國寺 新創		

65)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1656년 8월).

66) 尹用出, 앞 책, p.128.

67) 尹用出, 앞 책, p.125.

68) 「上樑墨書」, 『雲門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청도군, 1988, pp.175-177.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상량문은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체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다. 사진을 찍어서 원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69) 「상량묵서」, 『상량문집』, 1991, 문화재관리국, pp.233-246. 1988년 해체·보수시에 종도리 바닥 묵서 및 송판 서각이 발견되어, 이 건물이 1657년에 창건되고 1801년에 중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70) 「상량묵서」, 『한국의 고건축』 제 16호, 1994, p.18.

71) 운문사 대응보전·신흥사 대광전·범어사 대응전·용문사 대장전·신흥사 대응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이장근, 앞 논문, pp.112-125)

(2) 顯宗代(1659-1674년)의 再建工事

현종대에는 효종대와 달리 재위 초반부터 본격적인 억불정책이 왕과 집권관료층에 의해 시도되었다. 歷代 先后들의 顯堂인 仁壽宮과 慈壽宮이 廢寺되고 심지어 奉恩寺마저도 폐사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승려들의 도성내 출입이 금지되었으며⁷²⁾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성내 건축 공사장에 승군을 동원하던 정책마저 변경되었다. 이리하여 현종대 이후로는 도성내의 토목공사를 위해 승군을 징발·사역하던 일은 일찍부터 종식되었다. 다만 현종 8년(1667)의 종묘 永寧殿 수리에 승군 950명이 동원된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뿐이다.⁷³⁾

이러한 분위기에서 불교사원의 건축 공사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극단적인 억불정책에 대해 불교 교단 전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게 없지만 백용처능의 상소가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것 같다.⁷⁴⁾ 이렇게 위축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종대에 건립된 불전은 용문사 대장전(현종 6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⁷⁵⁾ 그런데 1671년의 신록사 중수에서 보듯이 왕릉의 원당 사찰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특히 신록사는 세종의 英陵뿐 아니라 父王 孝宗의 寧陵에 재를 올려주는 사찰이었기에 왕의 허락 아래 官府가 지원하여 중수 공사를 벌일 수 있었다.⁷⁶⁾

끝으로 주목할 사실은 현종 15년(1674)에 있었던 奉國寺의 創建이다. 즉위 직후에 초강력 억불정책을 폈던 현종은 두 딸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묘 근처에 원당 사찰을 창건하였던 것이다.⁷⁷⁾

2) 肅宗代 前半의 再建

17세기 4/4분기는 肅宗 재위기간(1674-1720)의 전반부인 1674년-1700년 사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정치사회사적 의의는 이미 충분히 규명된 바 있지만, 문화사적으로도 전쟁 이후의 혼란상이 극복되고 조선후기다운 새로운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널리 인정받기에 이르렀다.⁷⁸⁾ 이른바 조선성리학에 입각한 禮制의 확립과 西人

72) 『顯宗改修實錄』 卷 5, 顯宗 2年 1月 乙卯條.

73) 尹用出, 앞 책, pp.128-129.

74) 본고 제2장 주)12 참조.

75) 『續龍門事蹟記』(1688)(권상로, 『한국사찰전서』 pp.873-874)는 朴世大가 지은 글로 당시 용문사 주지였던 希旭의 부탁으로 쓴 것이다. 용문사에 관한 유일한 사적이면서 17세기의 재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 『용문사목각탱 造成記』(1684)에 등장하는 成能은 1699-1702년에 재건된 화엄사 각황전의 대공덕주 桂坡 性能과 동일인이라 주목된다.

76) 『驪州鳳尾山神勒寺重修事蹟記』(處能 撰), 『法堂重修碑記』(林垢配 撰), 『驪州鳳尾山報恩寺重修事蹟記』 등의 글이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pp.754-756에 실려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1670년대 신록사의 중수가 이조판서 金壽恒(1629-1689)·이조참판 閔鼎重(1628-1692)·호조판서 鄭致和 등 3인의 건의를 받아들인 왕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7) 『奉國寺新創記』, 『大覺登階集』, 『한글대장경』 166 (동국역경원), pp.238-240. 봉국사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에 있으며 대방보전과 아미타불좌상은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78) 鄭玉子, 『朝鮮後期文化運動史』(一潮閣, 1988년) 중 第1章 肅宗朝 國家祭儀의 整備 및 崔完秀, 『謙齋眞景山水畫考』, 『간송문화』 21 (1981) 참조.

에 의한 집권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불교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현종 4년(1663)의 억불정책 이후 활동이 위축된 시기이기도 하다.

양란 직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승군의 활약에 힘입어 지배체제 안에서 확보한 위치와 이를 발판으로 활발하게 벌였던 再建役도 17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주춤하는 상태에 이른다. 현재 건물 및 문헌 기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17세기 후반의 사원 재건 노력은 17세기 전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편이다. 고작해야 금산사 대적광전·화엄사 각황전·울곡사 대웅전·홍국사 대웅전·쌍봉사 대웅전 등에 대한 문헌기록 및 건물 내에서 발견된 기록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건물의 건립보다는 앞 시기에 이루어진 각 사원의 재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만이 비교적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사원에 남아 있는 事蹟碑·重修碑 등은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로 이 시기에 건립되었으며, 17세기에 맹활약한 고승들의 浮屠碑도 17세기 전반 이래 18세기 초반까지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절의 역사를 비석에 새기거나, 고승의 행장을 멋들어진 문장으로 지어 비석에 새기는 행위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대외적으로 절의 역사와 절을 빛낸 인물의 홍보 및 대내적으로 祖師를 중심으로 한 門中別法脈의 전수에 교단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⁷⁹⁾ 이러한 비석 건립 활동상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5> 朝鮮後期 寺院의 金石文 資料

撰述年度	碑名	碑文關係者
1603년(선조 36) 6월	普賢寺釋迦舍利碑	撰并書:休靜, 追記:松雲 惟政
1612년(광해군 4) 12월	海印寺四溟大師石藏碑	
1630년(인조 8)	淸虛堂休靜大師碑	撰:李廷龜, 書并篆:申翊聖
1632년(인조 10) 8월	普賢寺玩虛堂大師石鐘	撰書篆:三一山人
1633년(인조 11) 6월	道岬寺妙覺和尚碑	撰并書篆:柏巖 性聰
1636년(인조 14) 10월	松廣寺開創碑	書:義昌君, 撰并篆:申翊聖
1639년(인조 17)	桃李寺阿度和尙事蹟碑	
1645년(인조 23) 4월	普賢寺鞭羊堂大師碑	撰:李景奭, 書:曹文秀, 篆:呂爾徵
1645년(인조 23) 5월	白華庵鞭羊堂大師碑	撰:李明漢, 書并篆:義昌君
1648년(인조 26) 4월	常泰寺圓覺祖師塔碑	
1651년(효종 2) 9월	金山寺逍遙堂大師碑	撰:李景奭, 書并篆:趙晉錫
1652년(효종 3) 8월	深源寺翠雲堂大師碑	撰:鄭斗卿, 書并篆:魯翁
1653년(효종 4) 4월	道岬寺道詵守眉兩大師碑 陰	撰:李景奭, 書:吳垓, 篆:金光煜 撰:鄭斗卿, 書:金榮, 篆:金時侃

79) 李晉吾, 「朝鮮後期 佛家漢文學의 儒佛交涉樣相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p.92-102.에 의하면 조선후기에는 佛家의 文集이 대대적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간행의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儒家와의 交遊에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法脈의 전수에 있었다고 한다.

撰述年度	碑名	碑文關係者
1655(효종 6) 5월	慈雲寺碑	
1659년(현종 즉위)9월	岬寺事蹟碑	撰:李志賤, 書:李箕徵, 篆:洪錫
1662년(현종 3) 5월	虛白堂大師碑	撰:李景奭, 書:吳竣, 篆:李俔,
	碑陰	書:散文人 宗顯
1663년(현종 4) 8월	華嚴寺碧巖大師碑	撰:李景奭, 書:吳竣, 篆:趙啓
	碑陰	
1664년(현종 5) 4월	法住寺碧巖大師碑	撰:鄭斗卿, 書:李俔, 篆:福昌君
1667년(현종 8)	直指寺秋潭大師碑	撰:姜杭, 書篆:姜世白
1668년(현종 9) 10월	文殊寺楓潭大師碑	撰:趙綱, 書:李夏鎭, 篆:李瑞雨
1671년(현종 12)	楡岾寺春坡堂大師碑	撰:鄭斗卿, 書:金佐明, 篆:李俔
1676년(숙종 2) 4월	靈通寺碑	
1676년(숙종 2) 4월	龍淵寺釋迦如來浮屠碑	撰:權璫, 書并篆:李全濂
1678년(숙종 4) 10월	松廣寺普照國師甘露塔碑	書:崔致翁, 篆:李俔
	碑陰	撰:柏庵性聰, 書:山人 妙玄
1678년(숙종 4) 10월	松廣寺嗣院事蹟碑	撰:趙宗著, 書:李俔, 篆:胡原君
1681년(숙종 7) 5월	寶月寺重修碑	撰:趙宗著, 書:李俔, 篆:李侃
1681년(숙종 7) 5월	白蓮寺事蹟碑	撰:趙宗著, 書:李俔, 篆:李侃
1681년(숙종 7) 7월	直指寺事蹟碑	撰:趙宗著, 書:李俔, 篆:東平君
1681년(숙종 7) 7월	普賢寺楓潭大師碑	撰:趙宗著, 書:李俔, 篆:李侃
1682년(숙종 8) 9월	興教寺事蹟碑	撰:李東郁, 書:新村居士 尹憲卿
1683년(숙종 9) 9월	菩薩寺重修碑	撰并書:坡平 尹深
1684년(숙종 10)	寧邊鐵瓮築城碑	(城內 天柱寺 八十餘間 創置)
1686년(숙종 12) 3월	高城百川橋重創碑	撰:申琬, 書并篆:金構
1689년(숙종 15) 4월	泉谷寺事蹟碑	記:完山柳生
1690년(숙종 16)	楞伽寺事蹟碑	撰:吳遂采, 書并篆:曹命教
1692년(숙종 18) 4월	少林寺事蹟碑	撰并書:廣陵後人 通德郎 李必馨
1692년(숙종 18) 9월	美黃寺事蹟碑	撰:閔閔, 書并篆:李俔
1693년(숙종 19)	洛山寺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撰并書篆:李玄錫
1694년(숙종 20) 9월	普賢寺靈巖大師石鐘碑	撰并書:權璫
1695년(숙종 21) 6월	水泰寺事蹟碑	撰:尹濟民, 書并篆:吳羽進
1701년(숙종 27) 5월	松廣寺圓鑑國師寶明塔碑	書并篆:金亨五
1702년(숙종 28)	積川寺幢竿柱石記	
1703년(숙종 29) 6월	興國寺重修事蹟碑	撰:崔昌大, 書并篆:李震休
1706년(숙종 32) 2월	通度寺舍利塔碑	撰:蔡彭胤, 書:李震休, 篆:權珪
	碑陰	撰:聖能, 書:東雲門人 普允
1707년(숙종 33)	仙巖寺重修碑	書:李震休, 篆:權珪, 撰:蔡彭胤
1708년(숙종 34)	釋王寺事蹟碑	
1709년(숙종 35) 6월	心源寺事蹟碑	撰并書:李汝澤

말하자면 17세기 후반에는 앞 시기에 일어났던 각 사원의 재건 공사와 그것을 주도한 先師들의 공로를 기리는 데 치중하는 한편, 앞 시기에 이루지 못하고 남겨 놓은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앞 시기에 서둘러 지은 건물을 수리하는 차원에서 사원 건축의 造營活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金山寺 大寂光殿이나 華嚴寺 覺皇殿이 전자의 경우라면 興國

寺 大雄殿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17세기 전반의 재건 활동의 열기가 식은 뒤라서 건축 공사의 財源을 마련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금산사 대적광전이나 화엄사 각황전 같은 대규모의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재원과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왕실의 후원이 자발적인 것이었든 아니면 佛敎 敎團측의 募緣과 勸善에 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든 간에 위 두 건물의 공사에는 왕실의 후원이 뒷받침되었다. 다른 한편 栗谷寺 大雄殿이나 홍국사 대웅전의 경우는 지방 관청이나 일반 백성의 시주금에 의지하여 조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施主層 사이의 차이는 새로 지어진 불전의 규모나 불전 내부의 장엄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났을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재건역을 주도한 승려들의 佛殿觀과 사상적·신앙적 경향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건물과 문헌자료가 잘 남아 있는 4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17세기 후반 재건 공사의 실상을 파악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건 공사의 후원자 및 담당자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 자료를 분석하되 왕실의 후원을 받은 경우, 지방관청의 후원을 받은 경우, 승단의 自求 노력만으로 조영활동을 전개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王室의 後援

금산사 대적광전의 창건과 화엄사 각황전의 재건은 모두 숙종조 왕실의 후원 아래 대규모로 거행된 佛事였다. 앞에서 17세기 전반의 재건역에서도 해인사 대장경판고의 重營 및 화엄사 대웅전 재건에 왕실의 후원이 있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의 금산사 재건⁸⁰⁾ 및 화엄사 재건역에 관해서도 왕실의 후원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가 남아 있다. 더구나 각황전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헌자료가 사찰측에 전해 내려올 뿐 아니라, 불사에 참여했던 정부 관료들의 개인 文集에서도 관련 자료가 散見되어 이 문제를 추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⁸¹⁾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각황전은 후궁으로서 왕자를 낳았던 숙빈 최씨와 아들 연잉군(훗날의 英祖)의 순탄한 앞날을 기원하고 아울러 인현왕후의 친정이자 숙종의 외척인 집권 노론 세력의 앞날을 부처에게 가호받기 위하여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²⁾

(2) 地方官衙의 後援: 興國寺 大雄殿

전라남도 여천군에 있는 홍국사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모두 兩亂을 겪고 난 이후에 작

80) 「大寂光殿 樑間錄」, 『金山寺誌』 -한국사지총서-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3) pp.220-224.

81) 中觀海眼, 「湖南道求禮縣地異山大華嚴寺事蹟」(1636年刊) 鄭彙憲 輯錄, 『海東湖南道地異山大華嚴寺事蹟』(1924). 「上樑文」, 『朝鮮建築史論』(藤島亥治郎, 1930).

蔡彭胤, 「求禮華嚴寺丈六殿重建上樑文」, 『希菴集』 卷之二十五.

吳道一, 「全羅道求禮縣華嚴寺重建事蹟碑銘」, 『西坡集』 卷二十三.

82) 이강근, 앞 논문, pp.136-143. 참조.

성된 것이다. 그런데 창건 및 중창 그리고 양란 이후의 재건 및 1690년의 대웅전 증건에 대해서 그 연혁을 간략하게 적은 두 가지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⁸³⁾ 상량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법당 증건 공사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료 2]의 비음기에 적힌 명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146명의 인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시주질에는 122명의 僧俗 명단이 적혀 있다. 속인들의 이름 앞에는 官階나 官職名이 적혀 있으며, 승려의 法名 앞에도 관계에 해당하는 칭호가 적혀 있다. 즉 通政·折衝·同知 등 官階·判官·察訪·別將 등 官職, 判事·大禪師·大德 등 僧階 및 老德·住持 등 僧職을 속명이나 범명 앞에 적어 놓은 것이다. 이들 시주자 가운데 지방관리만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水軍節度使 李暉, 判官 洪時漢, 察訪 洪致碩·白以淸, 別將 孫善·黃一玄·金時暉·金太仁 등이다. 여기서 수군절도사는 정3품 外官職의 武官으로 水使라고도 하는데, 전라도의 수군절도사는 3명으로 감사겸임 1명, 좌도 1명, 우도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李暉(1655-1723)는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서 叔父인 李世華(1630-1701)에게서 수학하였는데, 이세화는 금산사 대적광전 창건 당시인 1686년에 전라도 관찰사로서 금산사의 불사에 참여한 바 있다.

판관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편제되어 실무를 담당한 종5품의 중급 관직으로서 소속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 군정에 참여하였다. 전라도의 판관은 8인이었는데 여기에 1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찰방은 조선시대 각 도의 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으로, 전라도에 6인을 두었는데 여기에 2인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에 순천부에 설치되어 있던 驛院은 良栗驛·洛水驛·德良驛·星省院·鎡川院·松峙院 등이다.⁸⁴⁾ 별장은 군사제도상의 관직으로 여기서는 각 지방 산성과 나루터의 수비책임자로 1인씩 둔 종9품 관직을 말한다. 별장 4인이 홍국사중수비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직에 있는 지방관리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전라도관찰사 대신 수군절도사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홍국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을뿐 아니라 홍국사의 승군을 지휘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지방관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⁸⁵⁾

(3) 敎團의 自求策

울곡사 대웅전의 재건에 대해서는 1990년 번와 보수시에 발견된 종도리 바다 목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목서를 “栗谷寺大雄殿上樑記”라고 부르기로 하자.⁸⁶⁾ 상량기는 간략한 머리말 및 施主秩·寺衆秩·少者秩·大施主秩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머리말에는

83) 『全羅道順川府靈鷲山興國寺事蹟』, 『朝鮮寺刹史料』 上, (1691년) pp.228-230,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 (豎立:1703년, 撰:崔昌大, 書并篆:李震休)

84) 『輿地圖書』 全羅道 順天 驛院條.

85) 홍국사에 대해서는 이강근, 앞 논문, pp.163-164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86) 『상량문집』,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1년, pp.217-221.

1679년 봄에 시작하여 7월에 공사를 끝냈다고 간단하게 재건 일정을 밝히고, 공사담당자를 創謨者(道機)·勸善者(淑蓮)·作之者(戒演)·記之者(智英) 순으로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여기서 도기는 住持, 숙련은 化主, 계연은 木手, 지영은 상량기를 지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질에는 총 127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 가운데 중복해서 기록된 8명을 제외하면 모두 119명이 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이 된다.⁸⁷⁾ 이 가운데 속인이 25명이고 승려가 94명인데, 속인 가운데 통정대부 官階를 지닌 林五男·정늦동 등 2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관직이나 관계를 갖지 않은 평범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율곡사의 재건은 율곡사 및 인근 사원에 소속된 승려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담한 규모, 주택에서 흔히 쓰는 창호를 4면에 두르고 있는 점 등은 바로 공사 참여자들의 성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승려 가운데 다른 사원의 재건역에 참여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 雪巖은 화엄사 98 대덕이자 화엄사 대웅전 재건역의 산중대덕, 智英은 화엄사 대웅전 재건역의 법당 대화사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화엄사 승려들이 율곡사로 이주해 있거나, 공사에 참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92명의 승려에 대해서는 법맥 관계나 소속사원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형편이다.

IV. 17世紀 佛殿의 建築的 特性

이제까지 II·III장에 걸쳐서 17세기 불전의 조성배경 및 재건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17세기에 만들어진 불전의 건축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규모, 평면구성, 벽체 및 창호구성, 공포형식, 장엄법식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규모 및 평면

먼저 17세기 불전의 규모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칸×3칸 불전의 면적은 작게는 18평에서 크게는 57평이 넘는 등 다양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 5칸×3칸 불전은 환성사 대웅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55평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금산사 대적광전은 90평이 넘어서 단층 불전 가운데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며, 화엄사 각황전은 1층 면적이 무려 117평이나 되는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⁸⁸⁾

87) 승려 가운데 상량기를 지은 지영은 '碧霞老陶智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인으로 보았고, 寺衆秩의 尙玄道服도 1인으로 보았다.<상량문집>에서 1인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록한 데 근거함)

88) 참고로 6세기 말-7세기 초엽에 조성된 황룡사 중앙금당은 바닥면적이 419평이나 되어 후대의 어떠한

層別로는 중층 건물 4채(법주사 대응보전·팔상전·금산사 미륵전·화엄사 각황전)를 제외하면 나머지 16채는 모두 단층 건물이다. 먼저 중층 건물을 평면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①7칸×5칸(화엄사 각황전), ②7칸×4칸(법주사 대응보전), ③5칸×5칸(법주사 팔상전), ④5칸×4칸(금산사 미륵전) 등으로 분류된다. 중층 불전으로서 정면이 7칸인 경우는 현존 건물 가운데 위 두 건물이 전부이며 대부분이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를 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면형식을 보면, 단층 불전으로서 정면이 7칸인 경우는 금산사 대적광전밖에 없으며⁸⁹⁾ 정면이 5칸인 경우와 3칸인 경우가 주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면과 측면이 모두 3칸인 경우가 가장 많아 약 56%에 이른다. 현존하는 불전 평면 가운데 건립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된 것은 3칸×3칸 형식의 불전이다.⁹⁰⁾ 다만 고려말기의 두 불전 즉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응전에서 채택된 3칸×4칸 형식의 평면은 조선전기 이래 채택되지 않았으며 17세기 불전에서도 유례가 없다. 5칸×3칸 형식을 가진 앞 시대의 불전은 부석사 무량수전밖에 없는데 반해 17세기의 불전은 4채가 남아 있어서 주목된다.⁹¹⁾ 그런데 이 4채는 모두 17세기 전반에 지어진 것이며 17세기 후반의 실례는 없다.

5칸×4칸 형식은 17세기 불전 형식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앞 시기에도 미륵사지의 세 금당(백제), 만복사지 서금당(고려)에서만 보이며 18세기 이후의 실례도 해인사 대적광전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중층 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⁹²⁾ 환성사 대응전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 된다. 끝으로 3칸×2칸 형식의 평면은 문루나 소규모 불전에서 주로 채택된 것으로 용문사 대장전이 주불전이 아님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용문사 대장전은 내부에 윤장대를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존불상과 목각탱을 봉안함으로써 주불전다운 장엄을 갖춘 특이한 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장대를 갖춘 유일한 건물이 17세기의 작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불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음을 알 수 있다.

- 89) 佛殿 이외의 건물로 7칸×4칸의 평면형식을 택한 건물로는 華嚴寺 普濟樓, 昌慶宮 通明殿, 景福宮 慶成殿(今無) 및 延生殿(今無) 등이 있다.
- 90) 金東賢, 『韓國古建築 斷章』 下(동산문화사, 1977.), pp.40-62까지의 내용은 우리나라 건축 평면의 형식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로서 도리칸×보칸의 형식 분포뿐 아니라 비례까지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도리칸을 3間으로 잡는 평면형식은 우리나라에서 즐겨 쓰였다. 또 다채로운 변화도 있다. 앞에 말한 도리칸보다 보칸을 많이 잡은 것도 이 도리칸 3間 형식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한 분석은 불교사원의 佛殿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91) 통일신라시대 7세기 후반의 感恩寺址 金堂, 四天王寺址 金堂 및 9세기의 불국사 毘盧殿도 5칸×3칸 형식을 택한 불전이다. 한편 皇龍寺址 中央 金堂은 11칸×6칸, 左右 金堂은 7칸×4칸이며, 彌勒寺址의 세 金堂은 모두 5칸×4칸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 92) 미륵사지의 세 금당은 2층이었던 것으로 추정 복원안이 제시되어 있으며(張慶浩, 『百濟寺刹建築』, 문예출판사, 1989.), 만복사지 서금당, 해인사 대적광전도 중층 건물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金奉建, 앞 논문, pp.131-136 및 pp.146-150). 한편 황룡사지 중금당은 裳階를 가진 3층 건물로, 동서금당은 2층 건물로 추정되고 있다.(金東賢, 위 논문, 1992.12, pp.178-186.)

<表 6> 17세기의 佛殿의 규모(단위: m) *

西紀	건물 이름	칸 수	정면 × 측면	면적(坪)
1605	화암사 극락전	3×3	9.880 × 6.180	18.5
1614	선운사 대웅보전	5×3	21.392 × 9.938	64.0
1618	범주사 대웅보전	7×4(2층)	21.28 × 11.15	71.9
1621	전등사 대웅전	3×3	8.440 × 7.495	19.2
1626	범주사 대웅전	5×5(5층)	11.36 × 11.36	39.1
1635	금산사 미륵전	5×4(3층)	17.94 × 13.32	60.3
1635	환성사 대웅전	5×4	11.817 × 9.454	33.8
1636	화엄사 대웅전	5×3	19.25 × 11.365	66.3
1636	개암사 대웅전	3×3	11.850 × 7.800	28.0
1641	쌍계사 대웅전	5×3	17.88 × 10.32	55.9
1643	백홍암 극락전	3×3	10.06 × 7.01	21.4
1645	통도사 대웅전	5×3		
1653	운문사 대웅보전	3×3	15.758 × 11.965	57.1
1657	신흥사 대광전	3×3	13.28 × 9.58	38.5
1658	범어사 대웅전	3×3	11.71 × 9.756	34.6
1665	용문사 대장전	3×2	9.810 × 4.950	14.7
1678	율곡사 대웅전	3×3	10.575 × 6.870	22.0
1686	금산사 대적광전	7×4	26.625 × 11.330	91.4
1690	홍국사 대웅전	3×3	14.85 × 10.98	49.4
1701	화엄사 각황전	7×5	24.374 × 15.865	117.2

* 참고 도판은 도 1.~도 20. 까지로 각 건물별로 정면 및 측면을 볼 수 있는 사진 1장씩만을 실었다.

2. 평면 간잡이

17세기 불전의 기둥간격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3칸×3칸 형식의 불전은 정면에서 어칸과 협칸의 길이차가 1자 혹은 2자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운문사 대웅보전이나 신흥사 대광전처럼 그 차이가 1.59m, 혹은 1.69m에 이르는데 대략 5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편 측면의 간잡이 방식을 보면 맞배다포집 불전인 화암사 극락전·범어사 대웅전 등은 어칸과 퇴칸의 비가 2:1 이상이며, 다포팔작집 불전인 경우는 퇴칸이 어칸보다 1자에서 5자까지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5자 이상 차이가 나는 운문사 대웅보전·신흥사 대광전 등은 정면 간잡이에서도 5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예외적인 간잡이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다른 한편 홍국사 대웅전은 정면 3칸을 모두 같은 간격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측면 3칸도 같은 간격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보이고 있다.

<表 7> 17세기 3칸×3칸 형식 불전의 간잡이(단위: m)

	부 분	화암사 (1606)	전등사 (1621)	개암사 (1636)	백홍암 (1643)	운문사 (1653)	신흥사 (1657)	범어사 (1658)	율곡사 (1678)	흥국사 (1690)
正 面	左挾間	3.090	2.48	3.75	3.14	4.736	3.78	3.546	3.42	4.95
	御 間	3.700	2.79	4.35	3.75	6.308	5.69	4.566	3.73	4.95
	右挾間	3.090	2.81	3.75	3.14	4.714	3.81	3.492	3.42	4.95
背 面	右挾間				3.14	4.760	3.81	3.539		
	御 間	上同	上同	上同	3.74	6.320	5.69	4.669	上同	上同
	左挾間				3.14	4.700	3.79	3.506		
右 側 面	前退間	1.545	2.03	2.505	2.05	3.465	2.52	2.154	2.19	3.66
	御 間	3.090	3.38	2.790	2.82	5.030	4.46	5.342	2.49	3.66
	後退間	1.545	2.08	2.505	2.05	3.470	2.56	2.260	2.19	3.66
左 側 面	前退間					3.467	2.53	2.274		
	御 間	上同	上同	上同	上同	5.038	4.40	5.343	上同	上同
	後退間					3.484	2.57	2.176		

3. 창호 및 벽체 구성

평면 형식은 상부의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하는 바탕이 되며 건물의 용도에 따른 동선계획을 비롯하여 내외의 장엄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 가운데 동선을 제시하고 내부의 채광을 결정하는 동시에 외부의 장엄을 형성하는 벽과 창호의 구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필자는 고려말 조선전기 불전의 벽과 창호구성을 정리하면서 고려시대의 폐쇄적인 감실형 불전이 조선전기에 개방적인 불전으로 변화해간 추세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15세기의 봉정사 대웅전에서 선보인 四面開放形 佛殿이 조선후기 불전에서 일반화되어 갔음을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⁹³⁾ 여기서는 17세기 불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3칸×3칸 單層 佛殿의 周壁 및 窓戶 구성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단층 불전에서는 3칸×3칸 형식의 불전이 가장 일반적이며 17세기 단층 불전 가운데서도 56%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평면형식의 주벽 및 창호구성은 가장 일반적인 외부 장엄의 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불전은 9채인데 <표 8>에 정리하고 상호 비교하여 시대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93) 이장근, 「조선후기 불교사원건축의 전통과 신조류」, 『미술사학연구』 202호 pp.127-161.

<表 8> 17세기 3칸×3칸 單層 佛殿 의 周壁 및 窓戶 구성

	부분	화암사 (1606)	전등사 (1621)	개암사 (1636)	백홍암 (1643)	운문사 (1653)	신흥사 (1657)	범어사 (1658)	율곡사 (1678)	흥국사 (1690)
正 面	左挾間	빗살 3	빗살 3	소빗 3	井살 3	소꽃 4	빗살 3	빗살 3	복합 3	복합 4
	御 間	빗살 4	빗살 3	소빗 4	井2빗2	소꽃 5	빗살 5	빗살 4	복합 4	복합 4
	右挾間	빗살 3	빗살 3	소빗 3	井살 3	소꽃 4	빗살 3	빗살 3	복합 3	복합 4
背 面	右挾間	판장 2	판장	井살	띠살	띠창	띠살 2	井살 2	띠살 2	띠살 1
	御 間	띠살 1	빗살	井살	판벽1	소창	띠살 2	井살 2	벽(1)	띠살 2
	左挾間	판장 2	벽(1)	井살 2	띠살 2	띠창 2	띠살 2	井살 2	띠살 2	띠살 1
右 側 面	前退間	띠살 1	빗살 1	井살 1	띠살 1	빗살 2	井살 1	井살	복합 1	띠살 1
	御 間	벽(3)	벽(1)	벽(2)	판벽 8	벽(1)	벽(6)	벽(4)	벽(1)	벽(6)
	後退間	벽(1)	벽(1)	벽(2)	판벽 6	벽(1)	벽(2)	판장 2	벽(1)	벽(6)
左 側 面	前退間	띠살 1	빗살 1	井살 1	띠살 1	빗살 2	井살	井살1*	띠살	띠살 2
	御 間	벽(3)	벽(1)	벽(2)	띠살 2	벽(1)	벽(6)	벽(4)	벽(1)	벽(6)
	後退間	벽(1)	판장 1	벽(2)	띠살 1	벽(1)*	벽(2)	벽(2)벽	벽(1)	벽(6)

범례: 빗살은 빗살문, 띠살은 띠살문, 판장은 판장문, 소빗은 소슬빗살문, 소꽃은 소슬빗꽃살문, 井살은 정자살문, 띠창은 띠살창, 소창은 소슬빗살창, 복합은 여러가지 문살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이며 숫자는 문짝의 갯수를 가리킨다. 또 벽의 경우 ()안의 숫자는 분절된 벽면의 갯수를 뜻한다.

위 표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면 어칸은 간사이가 가장 넓어서인지 가장 많은 수인 4-5짝의 문짝을 달았으며 문살은 빗살, 소슬빗살, 소슬빗꽃살, 복합문살, 정자살 등을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인 것은 빗살문이며 소슬빗꽃살을 쓴 예는 운문사 대응보전과 율곡사 대응전 등 두 곳뿐이다. 좌우협칸의 문살은 어칸의 문살과 원칙적으로 같고 문짝 수만 한 개 작게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백홍암 극락전은 어칸에서 가운데 2짝은 정자살, 좌우 2짝은 빗살문을 썼으며 좌우 협칸에도 모두 정자살문을 쓰고 있어서 17세기 불전에서는 유일무이한 구성방식을 보여 준다. 한편 복합의 경우 율곡사 대응전은 어칸에 문양이 서로 다른 4짝꽃살문, 좌우협칸에 띠살, 팔각교살창, 고창형식의 교살을 한 문짝에 조합한 3짝복합문을 설치하였다.⁹⁴⁾ 이에 반해서 흥국사 대응전은 빗살 위쪽에 고창 형식의 교살을 둔 문짝을 설치하였다.

둘째, 배면 어칸에는 띠살문·정자살문·빗살문 등의 문을 1-2짝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창을 둔 예(운문사 대응보전)가 하나 있고, 벽으로 막은 예가 둘 있다. 그런데

94) 『한국의 고건축』 제 13호(문화재관리국, 1992), p.102에서는 꽃살문의 맞춤수법이 영성하고, 선대물에 줄대를 두는 등 후기적인 수법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여 꽃살문의 제작연대가 건물보다 후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율곡사 대응전의 문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 주는 문이 율곡사에서 가까운 하동 쌍계사 대응전(1641년)에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상호 영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벽으로 막은 경우 벽면 처리는 통벽으로 처리한 경우(율곡사 대웅전)와 세분한 경우(백홍암 극락전)로 나누어진다. 배면 좌우협칸의 처리는 다양해서 정자살문을 둔 경우(개암사, 범어사), 띠살문을 둔 경우(백홍암, 율곡사, 홍국사), 판장문을 둔 경우(화암사, 전등사), 띠살창을 둔 경우(운문사) 등으로 구별된다. 이 가운데 전등사 대웅전처럼 좌협칸을 벽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방식이다.

셋째, 좌우측면의 경우 전퇴칸은 예외없이 출입문을 두었는데 모두 외쪽문이고 운문사 대웅보전만 2쪽문이다. 문살은 띠살을 쓴 경우가 4채, 정자살을 쓴 경우가 3채, 띠살을 쓴 경우가 2채이다. 앞서 5칸×3칸 형식의 불전에서는 띠살문인 경우가 1채, 띠살문인 경우가 2채, 판장문인 경우가 1채여서 이들을 종합하며 17세기 불전의 좌우측면 전퇴칸에는 띠살문, 띠살문, 정자살문이 두루 쓰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좌우측면의 어칸이나 후퇴칸은 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즉 백홍암 극락전은 좌측면에 모두 띠살문을 달았고, 범어사 대웅전은 우측면 후퇴칸에, 전등사 대웅전은 좌측면 후퇴칸에 각각 판장문을 두었는데 이는 후불벽 이면 공간에 괘불탱을 수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창호와 주벽의 구성에서 보이는 시대적, 지역적 추이를 정리하면 첫째, 꽃살이나 복합문살 등으로 문을 장엄하는 경향은 통도사 대웅전(1645년)에서 처음 보이다가 17세기 후반에 가면 운문사·율곡사·홍국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高窓이나(화엄사·쌍계사) 고창식 문살을 둔 경우(율곡사·홍국사)는 지역적으로 지리산 남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셋째, 좌우측면 어칸은 백홍암 극락전에서만 예외적으로 문을 냈을 뿐 17세기 전기간에 걸쳐서 벽체로 처리되었다. 넷째, 배면 어칸을 벽으로 처리한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17세기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채씩 남아 있다.

4. 장엄

다음으로 불전의 규모와 구조 및 내부 장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9>이다. 여기서 보면 17세기의 불전은 다포계 팔작집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다포계 맞배집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삼존불·삼세불·삼신불 등 세 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자세는 모두 좌상이거나 중앙 본존상은 좌상, 좌우 협시상은 입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불상 조각의 이러한 구성과 자세는 장방형 목조 불단의 사용과 무관할 수 없다. 불단을 만들어 불좌, 공양탁자 및 수납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제 17세기에는 주존불상을 입상으로 봉안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었다. 금산사 미륵전의 경우가 그것이다.

한편 예불공간의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후불고주의 위치는 側面平柱列에 맞추

어 원래의 자리에 세워진 경우 즉 正置한 경우가 9채이고, 고주를 뒤로 물려 예불공간을 넓게 확보하려고 한 경우가 5채이다. 그리고 후불고주를 처음부터 세우지 않은 경우가 5채이다.

<表 9> 17세기의 佛殿 莊嚴

西紀	건물 이름	규모	구조	奉安佛像	姿勢	天蓋	佛壇	後佛高柱
1605	화암사 극락전	3×3	다포맞배	아미타삼존불	坐	屋蓋	1칸	無
1614	선운사 대웅보전	5×3	다포맞배	비로사나삼신불	좌	雲宮	3칸	正置
1618	법주사 대웅보전	7×4(2)	다포팔작	비로사나삼신불	좌	운궁	5칸	正置
1621	전등사 대웅전	3×3	다포팔작	석가삼존불	좌	옥개	1칸	無
1626	법주사 팔상전	5×5(5)	다포사모	*1	*2	無	*3	四天柱
1635	금산사 미륵전	5×4(3)	다포팔작	미륵삼존, 좌우천왕	立	無	3칸	正置
1635	환성사 대웅전	5×4	다포팔작	석가삼존불	좌	운궁	3칸	正置
1636	화암사 대웅전	5×3	다포팔작	비로사나삼신불	좌	옥개	3칸	移柱
1636	개암사 대웅전	3×3	다포팔작	석가삼존불	좌	옥개	1칸	移柱
1641	쌍계사 대웅전	5×3	다포팔작	3불 보살	좌, 입	옥개	3칸	移柱
1643	백흥암 극락전	3×3	다포팔작	아미타삼존불	좌	운궁	1칸	移柱
1645	통도사 대웅전	5×3	다포복합	無佛	-	無	3칸	無
1653	운문사 대웅보전	3×3	다포팔작	비로사나독존불	좌	無	1칸	正置
1657	신흥사 대광전	3×3	다포맞배	석가삼존불(?)	좌	無	1칸	正置
1658	범어사 대웅전	3×3	다포맞배	석가삼존불	좌	옥개	3칸	正置
1665	용문사 대장전	3×2	다포맞배	석가삼존불	좌	無	1칸	無
1678	울곡사 대웅전	3×3	다포팔작	아미타삼존불	좌	옥개	1칸	無
1686	금산사 대적광전	7×4	다포팔작	5불 6보살	좌, 입	옥개	5칸	正置
1690	홍곡사 대웅전	3×3	다포팔작	석가삼존불	좌, 입	옥개	3칸	移柱
1701	화암사 각황전	7×5	다포팔작	3불 4보살	좌, 입	無	5칸	正置

*1: 팔상전의 사천주 주위 네 벽 들레에는 불단위에 각각 다른 상을 봉안하고 있다. 즉 釋迦說法像(東), 降魔成道像(南), 釋迦說法像(西), 열반상(北)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2: 열반상만 臥像이고 나머지는 모두 坐像이다.

*3: 사천주 들레 벽을 빙 둘러 설치한 回壇式 佛壇임.

* 후불고주의 위치: 側面平柱列과 동일한 경우는 正置, 평주열보다 뒤로 물려 세운 경우는 移柱라고 하였다.

봉안될 불상의 종류와 구성 및 자세는 불전 설계의 초기에 결정되어 불상의 봉안법식을 결정하고 장엄구를 설계하는 데 기준이 된다. 불단의 크기와 높이, 천개의 모양이 결정되어 봉안부의 설계가 끝나면 奉安空間을 감싸안을 불전의 구조체가 설계되는 것이다. 17세기 불전에서는 불단의 폭은 불전 정면 칸수에 맞추어 불전 정면이 3칸이면 불단 정면은 1칸 크기, 불전 정면이 3칸이면 불단 정면은 3칸 크기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범어사 대웅전이나 홍곡사 대웅전처럼 불전 정면이 3칸인데 불단 정면을 3칸으로 만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 두 불전의 내부는 불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불전 내부에서 많은 법회와 의식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불단을 크게 설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개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7채, 설치한 경우가 13채로 천개를 설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천개의 형식을 보면 옥개형이 9채, 운궁형이 4채로 옥개형 천개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17세기 불전의 공포 형식

17세기 불전의 공포 형식은 모두 다포식이며 지붕 모양만 맞배, 팔작, 사모 복합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지붕형태별로 분류하여 17세기 불전의 공포가 지닌 특색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통도사 대웅전의 복합 지붕은 팔작지붕 두 개를 십자형으로 융합한 형태이므로 팔작지붕에 포함시켰다.

먼저 다포맞배집 불전 5채를 정리·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간포의 배열에서는 어칸에 협칸이나 퇴칸보다 1구씩 더 배치하였다. 출목수는 안과 밖을 동일하게 한 경우가 2채, 안에서 출목을 하나 더 둔 경우가 3채이다. 첨차형식은 모두 교두형인 반면, 제공의 바깥쪽 끝부분은 앙서와 수서의 중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공의 건물 내부쪽 끝부분은 교두형을 기본으로 하되 운궁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表 10> 17세기 다포맞배집 불전의 공포 형식

건물 이름	空間包配列	出目數	첨차 形式	諸工外端	諸工內端
화암사극락전	1,2,1	外2內3	翹頭形	2仰+下昂	雲工形
선운사대웅보전	2,2,3,2,2	外3內3	華刻+翹頭形	3仰+垂舌	翹頭+雲工形
신흥사대광전	1,2,1	外3內4	翹頭形	3仰+3分頭	翹頭形
범어사대웅전	2,3,2	外3內4	翹頭形	3仰+垂舌	翹頭形
용문사대장전	2,2,2	外2內2	翹頭形	2仰+垂舌	翹頭+雲工形

* 이 표는 裴秉宣, 「多包系맞배집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pp.136-137 <표 4-9>에서 발췌한 것인데 제공의 형태는 柱間包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선운사 대웅보전의 운궁은 연봉각당초문 공포임.

다음으로 다포팔작집 불전 13채를 정리·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간포의 배열은 어칸과 퇴칸·협칸의 공간포 수를 같게 한 경우가 8채에 이른다. 따라서 어칸의 공간포 수를 1구 더 많게 한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목수는 안과 밖을 같게 한 경우가 8채이고, 안의 출목수를 1개 더 둔 경우가 3채, 2개 더 둔 경우가 1채이다. 그런데 금산사대적광전은 밖의 출목수가 오히려 1개 더 많아서 예외적이다. 첨차형식을 보면 모두 교두형인데 반하여, 제공의 끝부분은 건물 외부에서 앙서와 수

서의 결합, 교두와 3분두의 결합, 양서와 초각의 결합 등 3가지로 처리되었다. 건물 내부에서는 교두와 운공을 결합한 형식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교두형으로만 처리한 경우가 2채, 교두와 3분두의 결합 형식이 2채이며, 모두 운공형으로 처리한 독특한 경우도 1채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表 11>이다.

<表 11> 17세기 다포팔작집 불전의 공포형식

건물 이름	空間包配列(具)	出目數	첨차 形式	諸工外端	諸工內端
법주사대웅보전	1,1,1,2,1,1,1	外2內2	교두형	2假昂+蓮花	교두+운공형
전등사대웅전	2,2,2	外2內4	교두형	2양+수서	교두+운공형
금산사미륵전	1,1,1,1,1	外2內2	교두형	2양+수서	교두+운공형
환성사대웅전	1,1,1,1,1	外3內4	교두형	3양+3분두	교두형
화엄사대웅전	2,2,3,2,2	外3內3	교두형	3양+초각	교두+운공형
개암사대웅전	2,3,2	外3內3	화각+교두형	3양+초각	교두+운공형
백흥암극락전	2,2,2	外3內3	교두형	교두+3분	교두+3분두형
통도사대웅전	1,1,1,1,1	外3內4	교두형	3양+3분두	교두형
운문사대웅보전	3,4,3	外3內4	교두형	교두+3분	교두+운공형
울곡사대웅전	2,2,2	外3內3	교두형	교두+3분	교두+3분두형
금산사대적광전	1,1,1,2,1,1,1	外3內2	교두형	3양+수서	운공형
흥국사대웅전	3,3,3	外3內3	교두형	3양+수서	교두+운공형
화엄사각황전	1,2,2,2,2,2,1	外2內2	교두형	2양+수서	교두+운공형

- * 위 표에서 중층건물인 경우 1층 공포만을 다룬 것이며, 분석대상은 정면 공간 포임.
- * 전등사 대웅전의 제공내단은 주심에서는 운공형, 주간에서는 교두형임.
- * 금산사 미륵전의 제공내단은 정면에서는 운공, 배면에서는 교두형임.

V. 17世紀 佛殿 再建役의 建築史的 意義

본 논문은 조선후기 佛殿 재건공사의 실상과 장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가운데 17세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을 밝혀 둔다. 제 II장에서는 17세기에 진행된 佛寺 再建役의 조성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제 III장에서는 재건역의 실상을 네 시기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의 對佛敎施策의 변화에 따라 재건역이 浮沈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택한 시기구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再建役의 담당자, 후원자, 건축가를 밝히고 僧團과 왕실, 僧團과 지방관료, 승단과 민중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였다. 그 결과 碧巖覺性을 중심으로 한 智異山 華嚴寺 門中の 재건 활동이 적어도 남부 지역 사원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임을 밝혔다. 또 억불정책 및 자기측 黨色이나 스승의 학문만을 인정하고 상대 당파의 학문은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독단적 사상 풍토 하에서도 대규모 사원건축의 재건이 왕실 및 집권 관료의 주

도하에 가능했던 것은, 당시 왕위계승권자인 세자의 출생이 국가적,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측 당파의 왕비가 세자를 출산하기를 기원하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화엄사가 최대 규모의 불전인 覺皇殿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벽암 문중과 왕실 및 외척과의 돈독한 관계 때문이며 그 연결고리 역할은 白谷處能이 담당하였다. 지방관료 가운데 親佛敎의 인사들은 왕실과 인연이 있는 사찰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까지 하였으며, 당시는 전란 직후여서 재목수급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사정하에 있었는데도 재목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한편 재건역을 담당한 건축가는 17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 줄곧 僧匠이었으며 노동력 또한 전적으로 승단에서 공급되었다. 그런데 건축 승장들이 폐쇄적인 技門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또 우수한 건축가를 배출하는 사원이 따로 존재했는지와 같은 본격적인 문제는 거의 밝힐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불교건축을 비롯한 제반 불교미술의 담당자로서 승장 집단이 특정 사원에 소속되어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서만 해답이 내려질 것이므로 후일의 연구로 미루었다.

제 IV장에서는 17세기에 재건된 것이 분명한 20채의 불전이 지닌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층수는 단층 불전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중층불전도 후대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인 4채나 되었다. 이 가운데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층수인 5층과 3층의 불전도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둘째, 평면형식은 모두 장방형이고 규모에 있어서 5가지 유형이 혼용되었으나 3칸×3칸 형식이 가장 많이 지어졌고, 5칸×3칸 형식이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창호와 벽체의 구성에서는 4면에 창호를 두는 개방적 평면이 압도적이고, 아울러 적게 남은 벽체마저도 외벽에는 아무런 그림을 조성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벽화 대신 탕화를 걸어 벽면을 장엄하고 있다.

넷째, 공포는 모두 다포계를 채택하였으며 지붕형태는 팔작지붕이 14채, 맞배지붕이 5채, 사모지붕이 1채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숫자가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는 건립 연대가 분명하고 장엄이 우수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내부공간은 外陣과 內陣을 확연히 구분하던 전래의 구성에서 벗어나 내·외진을 적어도 불단 앞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불전 내부에서의 의례 및 집회가 증가하여 많은 인원을 건물에 수용해야 할 필요에 부응하여 내진고주를 생략한 데 있다.

여섯째, 이와 관련하여 불단의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생겼음은 물론이다. 후불벽의 폭보다 불단의 폭을 더 넓게 한 경우, 불상의 크기는 작는데 그것에 비해 불단은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은 모두 이러한 필요에 부응한 것이다. 불상과 불단 및 건물의 크기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설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관계를 이 글에서는 아직 계량화시키지 못하였으나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불상을 장엄하기 위한 장엄구로서 만들어진 불단(문자 그대로 부처가 연좌해 있음을 나타내는 수미단)이 불상의 크기와 조화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佛座의 臺라는 일차적 기능을 벗어나 供養法具는 물론 佛名牌까지 불단 위에 배열하는 儀禮의 壇이라는 역할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불단 내부에 의례에 쓸 물건들을 보관하도록 문을 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일곱째, 불전의 종류와 봉안된 불상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대응보전에 석가모니불 대신 비로사나삼신불을 봉안한 경우(화엄사 대응전·법주사 대응보전·선운사 대응보전)가 많아 화엄종이 불교사상의 주류였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준다.

여덟째, 봉안법식에서 봉안된 불상이 석가모니불이나 비로사나불 또는 그것을 본존으로 삼은 삼존불·삼세불·5불6보살 등은 모두 좌상이어서, 이러한 좌상에 어울리는 불단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륵불상은 丈六立像으로 만들어지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立像 봉안에 어울리는 불좌 및 불단 그리고 내부공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산사 미륵전은 따라서 6세기 이래 조성된 大佛石窟寺院과 유사한 장엄법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세기 불전에서 보이는 건축요소 및 장엄구의 조형적 특징은 16세기 이래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이며, 18세기에든 계속 이어져서 널리 확산되었다. 불전 내부의 장엄에 치중하던 태도를 넘어서서 불전 외부에도 조각적 요소를 동원하여 건축의 조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불전 내외를 모두 불교회화로 장엄하는 경향은 오히려 1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성행했지만 상징적 동물이나 식물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불전을 장엄하는 경향은 17세기에 성장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크게 꽃피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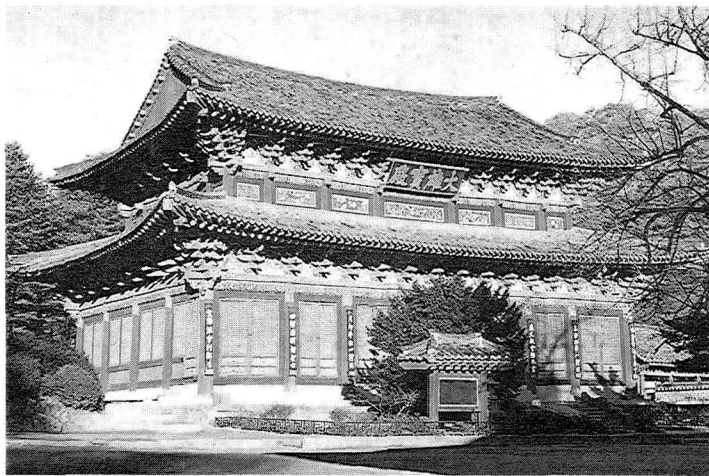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外侵으로 인하여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불교문화의 제 요소들이 17세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회복·성장·발전하여 다시 한번 종합적인 불교미술의 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18세기에는 벽화가 쇠퇴한 대신 탱화가 융성하게 발전하였다. 건축적으로는 3칸×3칸 규모의 불전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조각으로 장엄된 소규모 불전이 주류를 이루고, 대규모 불전의 건립은 주춤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의 이러한 대비는 사실 18세기 불전에 대한 연구성과 위에서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후에 18세기 및 19세기 불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7세기 불전의 건축사적 의의와 더불어 조선후기 불교건축의 건축사적 의의도 보다 뚜렷하게 구명될 것이다.



도 1. 화암사 극락전, 1606년.



도 2. 선운사 대웅보전, 1614년.



도 3. 법주사 대웅보전, 1618년.



도 4. 전등사 대웅전, 1621년.



도 5. 법주사 팔상전, 1626년.



도 6. 금산사 미륵전, 1635년.



도 7. 환성사 대웅전, 1635년.



도 8. 화엄사 대웅전, 1636년.



도 9. 개암사 대웅전, 1636년.



도 10. 하동 쌍계사 대웅전, 1641년.



도 11.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1643년.



도 12. 통도사 대웅전, 1645년.



도 13. 운문사 대웅보전, 1653년.



도 14. 양산 신흥사 대광전, 1657년.



도 15. 범어사 대웅전, 1658년.



도 16. 예천 용문사 대장전, 1665년.



도 17. 울곡사 대웅전, 1678년.



도 18. 금산사 대적광전, 1686년(1986년 소실).



도 19. 흥국사 대웅전, 1690년.



도 20. 화엄사 각황전, 1699-1701년.

[ABSTRACT]

A Study on Reconstruction of Main Buddhist Halls in the 17th Century, Chosŏn Dynasty

Lee Kang-geun*

This article is about Korean Buddhist architecture in the 17th centur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rchitectural program and design of the reconstructed Buddhist halls (佛殿). The concept of *chuang-yen* (莊嚴) in Buddhist art is adopted. The Sanskrit terms for the Chinese word *chuang-yen* (莊嚴) is supposed to be *alankāra*, *maṇḍa*, *avataṁsaka*, *vyūha*, etc. All these terms in the stūra express the beauty and majesty of Buddha's paradise (淨土) and further express that the bodies of Buddha and the Bodhisattvas are luminous with the beauty of their virtue.

Buddhist architecture has its origin in the stupa (塔婆) built in order to house Gautama's sarira (舍利). Buddhist painting and sculpture were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decorating stupas. This beauty is expressed in their canopies (天蓋), aureoles (光背), accessories (裝身具), and pedestals (佛壇).

In addition, the concept of *chuang-yen* must be broadened to the one which includes everything from decorative arts and ornaments to Buddhist statues, from the structure of the halls to the way of enshrining the statues (佛像奉安法式).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give examples of how this beauty was embodied in the 17th century Buddhist architecture of Korea.

First, I clarify that the architectural program of Buddhist halls is to make Buddhist statues majestic, and that each architectural element and its composition are supposed to accomplish the object of *chuang-yen* (莊嚴). Secondly, the lineage of the Buddhist monks (法統) in the 17th century are clarified. Finally, who are the patrons that led reconstruction of Buddhist halls in the 17th century is also clarified.

* Professor of Kyŏng-ju University

Through this study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The patrons who sponsored the grand Buddhist halls were royalty and top government officials who prayed for the birth of crown princes. It is stated in 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s, calligraphic inscriptions written on beams (上樑墨書) and epitaphs, that magistrates vigorously supported reconstruction of Buddhist temples in mountains in order to restore cultural assets.

2. The remaining twenty Buddhist halls built in the 17th century were rebuilt chiefly by the great monk, Byōg-am (碧巖) and his disciples.

3. Ornamental characteristic of Buddhist halls in the 17th century should be understood as architectural expressions of *chuang-yen* (莊嚴).